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 李明博 정부의 남은 과제

左派정권 재등장 막아야 한다

李明博정부의 잔여 임기 3년여 동안 李承晩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탄생 역사의 정통성과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확고하게 지켜 지난 10년과 같은 좌파 정권의 등장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공직 사회 전체의 도덕적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문도 제시됐다.

대한언론인회는 11월 23일 서울중구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무궁화실에서 李仁浩 서울대 명예교수와 宋復 연세대 특별초빙교수를 초청, 趙昌化회장 사회로 연중 테마 「언론과 국익」대담을 가졌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관련 전문가 진단을 통해 부문별로 언론과 국익을 심층 조명한데 이어 대미를 장식하는 대담이었다. 대담에는 文明浩부회장과 吳健煥상임이사, 成樂五 편집위원장 겸 주간이 배석했다.

이날 대담에서 宋復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선 좌파와 진보를 차별화하지 못하고 혼동상태에 있다면서 좌파의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와 정통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진보파로 행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李明博(MB)정부 이후 진보가 아닌 좌파가 집권하면 지난 10년 동안 경험했듯이 이 나라에는 희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 정부의 막중한 임무는 국정운영을 잘 해서 적어도 다음 10년은 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살리고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는 보수 정권이 집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인민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부르짖던 남민전 등에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해서 지난 10년동안 1천억원에 가까운 9백58억원의 국민세금을 주었는데 다음에 또 좌파 정권

李仁浩

서울대 명예교수

對談

宋復

연세대 특별초빙교수

사회 : 趙昌化 대한언론인회 회장

정리 사진 : 崔熙助 편집위원 (중부대 초빙교수)

때 : 2009년 11월 23일 곳 : 한국 프레스센터



대담하고 있는 李仁浩 교수(오른쪽)와 宋復교수.

자유 민주 - 시장경제원칙 지켜 대한민국 정통-정체성 수호를

이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찔한 생각이 들뿐이라고 말했다.

李仁浩교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정치의식이나 정체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덕적 파괴에 있다면서 이 정부는 국가 정체성의 위기와 도덕적 파탄에 이르기까지 어렵더라도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모자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MB정권이 잘 하는게 많은 데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거나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모자란다는 지적과 관련, 도덕적 의미에서 신뢰를 얻어야 하며 국가의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정부는 도덕적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만 나라를 잘 만들어 갈수 있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지 그냥 말로만 시장 경제나 산업화 선진화가 중요하다

고 해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宋復교수는 보수주의의 철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며, 자율과 분권, 개방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자율, 분권, 개방 이 세 가지를 정부가 정확하게 로드 맵을 만들어 밀고 나가야 보수주의 정권이며 이렇게 해야 차기 보수주의 정권도 보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율은 민간에 가능한 한 국가권력을 많이 이양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며 분권은 하위집단에 주요 정책 권한을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仁浩교수는 어떤 체제에서도 도덕적으로 책임지는 개인들이 없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보수나 진보나 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도덕적 자세를 갖추고 국민에게 어떤 호소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교수 모두 교육문제에 있어 자율을 강조했다.

宋교수는 학교는 학생 선택권을 가져야 하고 학부모는 학교 선택권을 가져야 하며 교육부만큼은 행정부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원안을 수정하더라도 세종시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교수는 교육에서 자율은 절대 필요하다면서 교육수요가 있는 만큼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펴야 하며 교육부 기능을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承晩 초대대통령에 대해서도 건국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며 그 일환으로 동상을 세우고 10만원권에 이 박사 초상을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친서민정책과 관련, 어떤 정부는 서민정책을 펴는 건 당연하며 인기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宋復교수는 특히 중도 실용정책이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현재의 일상생활에 효과가 있는 도리에 맞는 정책을 말하면서 이 정부가 과거 10년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경계했다.

한편 그는 민주주의의 정치는 국민대표가 모여 경제 활성화와 국가번영을 위한 법률통과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 국회에선 그 활성화 법률을 모두 사장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에 대해서 李仁浩교수는 국내 언론 매체 간의 자체 분열 현상과 국가 여론 선도 기능의 약화 및 정치 도구화 하는 경향을 문제로 제기했다.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 李明博 정부의 남은 과제

左派와 進歩 확실한 차별화 필요

趙昌化 대한언론인회는「언론과 국익」을 2009년 연중 테마로 설정해 월간「대한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국익이 무엇인지, 언론은 이들 국익에 대해 어떻게 순기능 또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분야별로 나누어 전문가들을 모시고 11차례에 걸쳐 살펴 보았습니다. 국내 그 어떤 언론 매체도 정면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대기확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12월 총정리할 단계를 맞아 두 분 석화를 모시고 대미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정부와 언론에 대해 주문하고 싶은 말씀과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명박(MB)정부가 2년 가까이 지나고 앞으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이 정부가 잘못해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 된다는 걸 이 정부가 알아야 합니다. 임기를 마치는 걸로 잘 했다. 해선 안 되고 그걸(좌파정권 등장) 막아야 합니다. 그게 이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봅니다. 이런 걱정을 포함해서 이 교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李仁浩 저는 사실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정부가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승리해 집권한 걸 반기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안감이 완전히 가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국가가 위기라 할 수 있는데 그 위기 성격이 무엇인가, 큰 틀에서 생각하고 그 문제를 의식하면서 구체적 정치 사안을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희장 말씀대로 국가 정체성의 위기와 경제 사회문제, 도덕적 파탄에 이르기까지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모자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MB정부는 정권 지지 세력과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각계 원로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지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돼 있지 않고 곁들기만 해요. 대한언론인회 같이 많은 걸 알고 생각하는 모임이나 자원을 정부운영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이미 쌓아놓은 지식도 활용하지 못하고 경험 없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서 천방지축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宋復 이명박 정부가 큰 기대 속에 등장했습니다. 우리 60년 선거사상 이명

박 정부처럼 압도적 지지로 등장한 정부도 없습니다. 그런 기대와 달리 처음부터 해매고 있다, 해매고 있다는 말은 철학이 없다, 철학이 없다는 말은 신념이 없다, 신념이 없다는 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로드 맵이 없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보면 대체로 보수가 10년 내지 15년간 집권하면 진보가 한 5년 집

국이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시를 인정하지 않는 좌파가 진보파로 행세하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조희장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MB정부 5년 이후 진보가 아닌 좌파가 들어선다면 지난 10년 경험했듯이 정말 아찔합니다.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남민전 등에 민주

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가치관에서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정부 아래서 여러 가지 파격적인 정책들을 펴다보니 지금 나라 전체가 투기장화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맡은 일에 열중하면서 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사회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교육문제만 보더라도 엄청난 가치의 혼란이 일어나서 마치 자리 다툼하는 게 교육의 전체인양 언론에 항상 교육문제가 등장합니다. 교육의 내용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양상이 사회의 갈등구조를 낳고 위기의식마저 불러 일으키는 요인으로 인식하는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저는 어느 면에선, 정확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양심세력과 양심적이지 않은 세력 사이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을 자처하는 사람들 이라도 나라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허울 좋은 이념아래 무책임한 일을 벌이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적잖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宋復 나라를 양분해서 보면 이교수 말씀대로 양심세력과 비양심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권을 생각하는 세력과 나라를 생각하는 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후반에 수도를 대전으로 이전한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 때 김대중전대통령이 진주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어느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절대로 수도를 옮기면 안된다, 서울이, 한양이란 곳이 어떤 곳인데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려 하느냐, 천하 없어도 수도 이전만은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절절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하게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김대중대통령이 노무현후보가 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을 때 가만히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밀어주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나라를 생각하고 선거에 임해선 정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가 경제리든가 국방, 외교, 이런 건 거의 A학점에 가까운 정도로 잘 한다고 평가합니다. 안 되는 것이 정치, 교육, 그리고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이고 시장경제, 이것이 철칙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구체적으로 무어나, 첫째는 자율입니다.



공직사회 도덕성 확립을 강조하는 李仁浩 교수.

나라 먼저 생각하는 양심 세력 중심 최소한 10년을 더 보수가 집권해야

권하고 보통 2대 1, 3대 1 정도의 기간을 갖고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가며 등장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보수 세력이 부(富)를 창출하고 편안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10~15년 지나면 성공에 안주해 관료화하고 부패화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다 참신한 이상의 국가 계획을 내세우는 진보가 등장합니다. 진보에서 중요한 점은 성취보다는 계속 운동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성취는 보수가 하고 운동은 진보가 합니다.

진보의 개념을 정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선 지금 좌파와 진보를 차별화 하지 못하고 혼동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와 일본의 사회당, 이들은 모두 진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 좌파입니다. 보수는 서서히 개혁을 하자는 주장을 하지만 진보는 좀 더 급진적 개혁을 하자는 정책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의 경우는 우리의 헌법체제와 정통성, 건

화 운동을 했다고 해서 국민세금 9백58억원, 1천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지난 10년 동안에 주었습니다. 이 정부가 조희장이 말한 대로 5년을 잘못해서 좌파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세금만 쓰는 게 아니라 더욱 더 대한민국 정통성을 말살하고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의구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보수 정권이 튼튼한 인프라를 만들어 놓아 나라의 기본을 흔들지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이 지나고 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리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막중한 임무는 정치를 잘 해서 어쨌든 다음번, 그 다음 10년은 더 대한민국 정통성을 살리고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李仁浩 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단순히 정치 의식이랄까, 정체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파괴라고 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정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 李明博 정부의 남은 과제

자율-분권-개방 로드맵 추진하라

2면에서 이어집니다.

민간에 가능한 한 국가권력을 많이 이양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두번째는 분권입니다. 집권이 아니라 분권입니다. 세번째는 개방입니다. 자율과 분권, 개방,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일 뿐 아니라 시장 경제의 원칙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제는 민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던 50년대나 60년대에는 민간 영역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정부로 갔습니다. 정부 관리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어요. 그 덕분에 박정희대통령이 산업화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화도 어느 정도 성공해 자동적으로 인재들이 민간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민간에 잘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민간에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에서 자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권을 따지고 보면 시장에 국가권력의 상당부분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시장에 위임하느냐,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오래된 제도에 시장과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 시장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시장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마르크스가 가장 적대시 한 것이 시장입니다. 국가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고 마르크스는 보았습니다. 시장을 장악해서 성공한 나라가 있을 수도 없거니와 공산주의 자체가 망했습니다. 시장에다 권력을 맡긴다는 건 하위집단에다 주요 정책 권한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권인데 분권을 하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창의입니다. 분권을 해서 창의력이 부족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는 개방인데 개방이야기가 나오면 이승만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벌써 1백여년전에 개방을 주장하는데 그 내용이 그의 유명한 저서인 「독립정신」에 나와 있어요. 독립정신이 고전 중의 고전인 줄 몰랐어요. 그걸 읽으면서 아주 놀랐어요. 29살의 청년이 감옥에 앉아 썼는데 개방을 주장하는 그 근거가 100년이 지난 오늘날 하고 똑 같아요.

자율, 분권, 개방, 이 세 가지를 정부가 정확하게 로드 맵을 만들어서 밀고 나가야 보수주의 정권입니다. 이렇게 해야 차기 보수주의 정권도 보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끝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촛불 한번 만나면 흔들리고 촛불에 흔들리면 산불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대통령의 인기가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서민정책, 그거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중상층 이상은 어느 나라에서도 전체 인구의 20% 밖에 안 됩니다. 70~80%는 중하층 이하 서민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친서민정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수와 좌파 정권에서 친서민정책을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정권이 전 정권을 욕하



자율-분권-개방의 로드맵 추진을 강조하는 宋復 교수.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회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러시아 전문가로서 늘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반공교육 정책의 후유증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탈냉전이니 색깔 논쟁의 극복이니 하는 게 완전히 전도된 의미로 쓰인 나라가 없어요. 냉전은

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역작용이 일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동권을 통해 공산주의 미화의 바람이 마구 불어왔고 그제 운동권 의식 속에 굉장히 깊이 각인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386세대가 희생자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말하자면 공복에다가 아무거나 음식이라고 먹여 놓으면 배고프니까 다 받아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갖다 줄 때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 배가 불렀으니까요.

70년대, 80년대 지하 운동권 커리큘럼에 쓰인 책들을 보면 소련에서 조차 폐기처분한 내용들을 그대로 베껴 놓았습니다. 스탈린 시절에 트로츠키 등 반대파와의 투쟁에서 공산주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썼던 내용들을 흐루시초프 때 와서 많이 폐기처분 했거든요. 옛날 공산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던 분들의 우리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 쪽을 미화해서 쓴 책들이 운동권에 거의 성서 같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편견의 층이 너무 두텁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들어가기 어려운 힘의 구조가 돼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명박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젊은 이들 가운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감염이 돼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못 보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산권에서는 이승만은 결코 용서 못할 존재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박사만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서지도 못했고 절대로 방어할 수도 없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로 격하시키는 공작은 아주 집요했고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19때 구호를 보더라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서 공산주의를 이기자, 이런 구호였어요. 그런데도 지금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4·19를 대한민국 타도 운동이었던 것처럼 오인하기도 합니다. 이러저러한 분위기와 상황을 공산권 쪽에서 역이용 해 이승만이 역사에서 얼굴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렸어요. 그 분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설 수도, 지킬 수도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거꾸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동상 하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이념도 그렇고 국민의식도 바로 설수가 없습니다.

4면으로 이어집니다.

시장경제중심으로 정부정책 수행 민간에 권력위임 창의성 이끌어야

더니 거기에 답습하려는 사이비 진보정권이 아닌지, 이 교수님 말씀대로 뜻있는 양심세력에게 불안감을 준다, 이겁니다.

李仁浩 송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구구절절 다 동감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첫 번째 하셨어요. MB 정권이 잘하는게 많은데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거나, 국민과 소통능력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선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도덕적 의미에서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관성 있게 철학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흔들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설득이라고 하는 건 송선생께서 전문가이시지만 기술의 문제입니다. 정권 출범부터 반정권적인 매체를 장악하지 못하고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하면서 마구 흔들렸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텔레비전 매체들에 그 전보다는 나아졌습디만, 아직도 상당히 국가의식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리의 종식이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로서 그런 논쟁이 필요 없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적화통일을 노리는 북한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면 그것을 색깔논쟁이라고 몰아붙이는 일이 10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 역사는 이미 뒤안길로 사라져 작동하지 못하는 원리가 됐는데 우리 쪽에선 거꾸로 그걸 비판하면 보수 골통 소리를 듣고 때로는 설자리를 잃는 그런 현상이 오래 나타났어요.

그렇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옛날 반공교육을 할 때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하는 걸 왜 나쁘냐 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게 교육을 하지 못하는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직접 체험하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세대에 공산주의는 덮어 놓고 나쁘다고만 했지, 공산주의를 공부할 기회를 막았거든요. 내가 그 때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식으로 하면 뒷날에 반드시 역작용이 일어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 보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 李明博 정부의 남은 과제

도덕적 신뢰 바탕 국민과 소통을

3면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이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독립운동세력과 이승만세력, 광복세력과 건국세력, 친 대한민국과 4·19세력이 모두 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전부 다 서로 싸우고 대치하는 세력 같이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정파들이 싸우는 걸 보면 나라에 대한 생각보다도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앞서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సు니 진보나 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도덕적 자세를 갖추고 국민에게 어떤 호소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지금도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등한시 했던 것이 바로 그 인간의 도덕적 책임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체제에서도 도덕적으로 책임지는 개인들이 없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옛날 서양에서도 왕정, 귀족정, 공화정을 얘기할 때 공화정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은 덕이 있어야 한다는 걸 항상 강조 했거든요. 권력을 행사하는 개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화정이 왕정보다도 엉망이 된다고 하는 경고가 늘 있었습니

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내세웠던 톨스

토이의 이론이 있습니다. 왕정 치하에서는 권력을 운용하는 왕 측근들이 부패하면 그들만으로 끝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하늘의 도리에 순응하고 살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하면 전부가 권력을 조금씩 나눠 갖고 권력은 사람을 부패시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다 부패하고 만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자꾸 그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인성 교육, 도덕성, 이런 건 강조하지 않고 무한경쟁을 너무 강조해 왔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로부터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가 인성에 관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싱가포르를 사랑하는 걸 배우고 또 중등학교에선 싱가포르를 알고 방어하는 걸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지도자가 되는 걸 배웁니다. 그게 교육의 궁극적 목

표로 돼 있어요. 그런 걸 깔고 그 다음에 이념이든 뭐든 나갔어야 할텐데 우린 그게 쏙 빠져버렸던 같아요. 이 정부는 도덕적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만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고 나라를 잘 만들어 갈 수 있지, 그냥 말로만 시장경제나 산업화, 선진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대담을 마치고. (좌로부터 趙昌化회장, 李仁浩교수, 宋復교수)

교육을 통해서 시키지 못하면 사교육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국경이 열려 있는 시대인 만큼 해외에 조기유학을 보냅니다. 이런 게 바로 자율을 주지 않은 역작용의 비용이거든요.

거기다 이상한 좌파의 평등논리가 판을 칩니다. 자율적인 사립학교가 들어 서면 불평등이 심화한다면서 그런 논리를 폼니다. 그건 거꾸로입니다. 철저하

가 조사한 바로는 1940년대 초에 김일성수령께서 두만강을 1년에 10만번을 건너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서교수가 그게 아니라 그 유명한 보전보 전투도 일본 경찰 4명이 있었는데 김일성이 150명을 데리고 가서 습격했을 뿐이다. 그리고 10만번이라 하자.

그럼 하루에 300번 쯤이고 그것도 잠한 숨 안자고 1시간에 두만강을 열댓번 씹이나 넘나 들었다니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랬더니 좌파 학생들은 그래도 김일성장군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되면 과학이고 논리고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1950년에서 1990년까지 한 40년 이상 정부 주도의 반공교육이 있었는데 그 역작용으로 정반대의 극단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새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전과 달리 보수적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

다. 이승만박사의 정통성 얘길 했는데 이 정부가 세워야 할 실체가 있는 정통성은 10만원 고액권에 이박사 초상을 넣는 일입니다. 노무현정부 때 한국은행에서 고액권 도안 관련 여론조사를 한 다면서 나한테 신라시대 이래의 역사적 인물 20명에 대한 선호도 점수를 매겨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김구는 있고 박

정희, 이승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건 안된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고 박정희는 산업화대통령인데 꼭 넣어야 한다,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대통령은 이 두 분 뿐이다. 그랬더니 한은에서 답이 왔어요. 자기들 조사로도 70%가 넣어야 한다는 거 였지만 정치적 논란이 너무나 많아 두 분을 도저히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폐 초상화는 나라의 건국이념과 정통성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기어이 김구선생과 신사임당으로 결정하더라구요. 1945~48년까지 해방공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좌우합작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와 있던 하지장군이라든가 아놀드 군정장관마저 좌우합작을 강하게 추진하고 이박사한테 설득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李仁浩 2차 세계대전 후반기에 미국 국무부 고문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실세였으며 남북한 좌우합작을 밀었던 알제히스(Alger Hiss)가 나중에 소련의 첩자로 판명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박사가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건 기적이나 다름 없습니다.

5면으로 이어집니다.

共産化 막아낸 이승만 공로 재조명 일관성 있는 철학 제시로 감동줘야

趙昌化 이 교수님이 아까 설득과 소통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MB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이 중도실용입니다. 중도실용은 소통능력에 약발이 있는 겁니다.

李仁浩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도라는 게 편파적이 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철학이란 항상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송 교수님이 교육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교육에서 자율은 절대 필요합니다. 교육이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공립과 사립을 다 통틀어서 교육부란 거대 기관이 전부다 목을 조이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가서 파생한 것이 사교육 시장입니다.

그나마 이제는 외국으로 교육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으로 들어올 돈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도 정직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능력껏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부모들 같이 자녀들에게 희생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공

게 자립성을 가진 학교들이 생기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장학제도도 생기고 가난한 집의 아이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은 텅 비어있는 식의 평준화 틀에다가 모든 사람을 묶으면 겉으로는 그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성이나 정직성도 없는 이중적 자기기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宋復 이 교수께서 반공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그 반작용으로 공산주의에 심취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와이대학의 서대숙교수가 1990년대초에 연세대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김일성 연구 전문가로서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학문적 정통성을 가진 분입니다. 서교수가 “김일성이 조선이란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소련 이름으로 반일저항운동을 했을 뿐이다”고 했더니 좌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좌파학생들이 말하기를 우리

중도 실용 정책 원칙 지켜 적용을

4면에서 이어집니다.

宋復 이승만박사는 동구를 보아라.좌우합작을 하면 공산정권이 들어선다, 좌우합작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지와 아놀드를 거꾸로 설득했지요, 이박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설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6·25전쟁은 또 얼마나 큰 전쟁이었습니까. 공산침략을 막아내고 한미동맹을 강화한 이박사 아니면 공산화 했습니다.

이승만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탄생 역사의 정통성과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정부가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승만대통령을 반대하는 쪽은 이승만의 단정수립으로 영구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로 90년에 공개된 구 소련의 비밀문서에서 김일성이 먼저 북한 정권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45년 9월 20일 소련이 김에게 친소 단독정부 수립을 지시하고 46년 1월 26일 북한만의 단독 공산정권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승만의 남한에 단독정부를 세워야겠다는 이른바 정읍발언이 나온 게 북한정권 수립 6개월 뒤인 46년 7월20일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 끝나기 전에 이승만 건국대통령으로 하는 정통성을 가시적 실체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동상을 서울 세종로에 는 못 세우더라도 남산에 세우든가 해야 합니다.

李仁浩 그래도 이명박대통령이 작년에 건국 60주년 기념연설에서 건국기념관을 세워야 한다 해서 그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趙昌化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宋復 과거를 돌아보며 이해하는 것이 역사정신인데 언론인만큼 역사정신이 없는 직업이 없는거 같아요. 저도 언론에 14년 종사하다 학교로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생들에게 작년 11월부터 올 1월 사이에 7차례 현대사 특강을 했어요. 거기서 대한민국은 참 위대한 나라다. 1945년 이후 신생 독립국이 1백40개가 있는데 민주화 산업화를 이룬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왜 성공했나. 그것은 인물로 치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대한민국의 복이다. 그리고 기업과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강의했더니 전교조 교사가 벌떡 일어나 그렇지 않다며 내 설명을 반박해요.

그 전교조 교사의 억지 반박도 따지고 보면 반공교육의 역작용에서 나온게 아닌가 해요. 일반 국민은 이제 지난 10

년 동안 많은 걸 보고 겪어서 많이 달라졌어요.

이 정부가 내세우게 중도실용인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그게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의 중(中)은 가운데 중자이지만 적 중할 중이란 뜻이고 도는 도리 도(道)입니다. 도리에 맞게 하는 정책을 중도 실용정책이라고 합니다. 도리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산술적 가운데가 아닙니다. 원칙적 적용을 중도라고 합니다.

李仁浩 언론인등 지식인 직업에 큰 변화가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 전에는 배가 고파도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를 매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스스로가 그런 내면의 프라이드 정신을 앞세우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놓치기 아까운 직업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정치 저항력이 약화하고 대통령이나 총리에 큰소리 하는 언론인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언제부터인가 우리 언론은 방송매체가 정부에 장악되고 좌파정권의 도구가 되고 신문과 방송이 갈라지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불상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론이 자체

다시 실용중도 정치를 말합니다. 정치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중요합니까. 민주주의 정치는 대의제고 국민대표가 모여 경제 활성화와 국가번영을 위한 법률통과 기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그 활성화 법률을 다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용정책은 현실에 맞는 법률을 만들고 통과 시켜야 하는데 제일 막혀있는 부문이 서비스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문은 교육입니다. 의료, 법률, 관광, 패션디자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종사자는 2008년 말 현재 전산업 고용의 67%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33%가 제조업과 기타 산업입니다. 10원 어치 생산을 하는데 제조업은 9명, 서비스업은 그 두 배인 18명을 취직시킵니다. 그만큼 서비스업의 고용증대 기여가 큼니다.기간산업인 제조업도 물론 동반 활성화 해야 합니다. 그 활성화를 국회에서 막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정치를 할 줄 모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친이, 친박으로 분열해서 안 되고 거기다 민주당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4대강을 왜 반대합니까. 4대강이 성공하면 그 효과는 청계천 성공에 몇 십 배가 됩니다. 한 10년은 더 보수정권이 보장 받을 수 있는

학원한테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이 교수께서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부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외국어 고등학교 왜 억제합니까. 많이 만들어야 가난한 학생도 장학금을 받아 다니고 외국에 나가 달러 안 쓰고 적자도 줄일 수 있는데 왜 막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발상이 거꾸로 갑니다. 포퓰리즘으로 교육이 갑니다.

관광에서도 중국인들이 작년 한해 4600만명이나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한국에는 그 중 겨우 3%인 1백37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우리나라 길거리의 간판에 한자 병기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판에 한자 섞어 쓰도록 하면,이런 게 모두 실용정책입니다.

李仁浩 교육부기능을 축소해야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자발성이 활성화하도록 격려 지원하는 기능에 그쳐야 합니다. 스웨덴에서도 국가가 교육을 장악하다가 지자체로 넘기고 국가 지원 자율학교를 만들어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폈니다.

宋復 내가 연세대 교수로 있으면서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글을 많이 썼 습니다. 92년인가, 93년에 일본 게이오대, 와세다대, 연세대, 고려대총장이 서울에서 좌담회를 했어요. 그 때 게이오대총장이 한국은 일제시대 것은 다 안 된다며 철폐하고 반대 하면서 일본 교육부는 왜 그대로 이

어 받아서 우리 일본 교육도 망하고 한국교육도 망하게 하느냐는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세종시에 일부 부처를 이전하는 게 원인인데 교육부는 꼭 보내야 합니다. 교육기관도 더러 간다고 하니까 교육부를 보내서 차제에 기능이 축소 됐으면 합니다.

趙昌化 실용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두 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결론을 삼을까, 합니다.

宋復 실용이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현재의 일상생활에 효과가 가는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의 말이기도 합니다.

李仁浩 자율경쟁원리를 철저히 적용하고 복지하한선을 정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능력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趙昌化 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 자율경쟁체제로 바뀌야 언론 자체 분열로 정치 도구화 우려

분열하면서 정치 도구화하는 비극을 낳았다고 봅니다. 국가여론을 선도하는 기능을 하고 정치적 어젠다 설정을 해야 하는데 정파싸움이나 이권다툼 같은 것이나 크게 조명합니다. 나라 전체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거꾸로 뒷전으로 밀려나 누구도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宋復 언론인은 본래 일제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지사며,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뒤 월급을 받는 기능인으로 됐어요. 나는 그 원인을 언론인 자신에 있다고 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면 전문인이라고 하는데 언론인은 다른 분야에 비해 석박사가 너무 적어요. 미국의 에디터 들을 보면 대부분 박사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문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치고 언론인이나 정부 관리만큼 박사 수가 적은 데가 없어요. 삼성전자 한 회사의 박사 수가 대한민국 관리 전체의 박사 수보다 많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세 대학의 박사 수를 합친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5년 전부터 물부족 국가입니다. 4대강 개발이 저수개념인데 그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연간 1천2백억톤의 비가 오지만 그 80%가 바다로 흘러가 버립니다. 저수개념이 없는 4대강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 이런 게 실용정책입니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만 외국에 연간 185억달러 적자를 봅니다. 교육, 의료, 관광, 법률, 패션디자인분야에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2007년, 이명박 정부 2008년, 3년간 적자가 5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상당부분이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안 되니까 외국에 교육 받으러 나가서 한해 1백억달러를 씁니다.교육이 무엇입니까. 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가져야 하고 학부모는 학교 선택권을 가져야 합니다.교육목적은 최고를 더 최고로 만드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평준화라고 해서 다 하향평준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정부도 도리에 맞는 중도정책을 펴야 하는데 과거 10년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국가 백년대계 차원의 解法을

세종시를 당초 계획대로 '행정복합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첨단 미래 산업 도시로 대폭 수정해 추진하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해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문제의 세종시법은 사실 태생적으로 골치 덩어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2002년 대선 당시 충남 연기군 일부와 공주시 일부에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으로 빛을 보긴 했으나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여 2004년 헌재(憲裁)의 위헌 판정(관습법에 근거)을 받고 2006년 그 대안으로 만들어 진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약칭 세종시법)'이다. 이 법대로라면 9부 2처 2청 규모가 세종시로 이전 하게 되고 이들과 연계되거나 관계되는 업체나 기업들의 이전도 자연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 일각을 비롯한 정운찬 국무총리의 수정론, 뒤이어 제시된 로드맵,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하기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가동,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세종시법 수정 추진 의사 표명 등 말썽 많은 세종시법 원안추진은 물건너 간 형국이다. 늦어도 2010년 1월까지 최종적인 정부안을 내놓겠다니까 어떤 대안이 제시 될지 궁금하다.

어쨌든 세종시법 수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논거는 "행정부처를 갈라놓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낭비"라는 점을 들고 있다. 행정부서의 과도한 분산은 타부서와의 업무 협조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능률 저하이고 자족기능이 부족할 경우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 명을 이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말

부부만 양산할 뿐"이며 "통일이후를 생각해 볼 때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도 수정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원안 고수를 고집하는 쪽은 원칙론을 앞세워 "법률에 따라 집행중인 국책사업을 이제 와서 수정한다는 것은 국민

時 論



정운종

· 본회 회우
· 시사문제 연구소장

지라도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아 엄청난 손해가 예측된다면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종시에 9부2처2청이 들어선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수도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잠재울 수 없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수도 분할 내지는 천도의 성격이 강한 행정부처 이전은 현재의 위헌판결을 뒤

충청도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수도를 분할하겠다는 발상부터가 큰 잘못이었다. 이념적으로 경도된 노무현 좌파정권이 수도를 이원화 하겠다고 나선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세종시법을 국가안위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조그만 국토에서 수도 서울의 기능을 분산시켜 어쩔 셈인지, 행정의 비능률도 문제지만 이 눈부신 국제화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언젠가는 통일을 앞당겨야 할 입장에서는 미래의 행정수도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의 전진이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이 아닐까.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지만 행정수도 건설은 솔직히 말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충청도 표를 의식해 남발한 득표 전략의 하나였다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려 있다. 행정수도 건설과 같은 국가의 중대 사안은 국민 절대 다수의 찬성이 전제돼야 한다. 불가피 하다면 국민투표에라도 부처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해법일 것이다. 세종시 문제의 해법은 지역이나 개인 또는 집단이 기주의를 앞세워 풀릴 일도 아니다. 야당도 세종시 문제를 너무 당리당략적으로 보지 말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거시적인 안목과 지혜가 필요한 때다. 한나라당 역시 다양한 대내외 여론을 수렴해 통합된 당론으로 귀일 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느낌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아 어떤 결정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인지 충청도민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보다 대국적인 차원에서 세종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천도성격 강한 부처이전 비판 못면해 필요하면 국민투표에 부처 결정해야

과의 약속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고 세종시법 자체를 완전 폐기하지는 주장에 동조하긴 어렵다. 세종시 건설은 현재 전체사업비 22조 중 5조원 이상이 투입되어 24% 이상 진척되고 있으며 이미 이전 기관인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 등은 건물이 착공됐고 국무총리실 건립공사는 33%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계획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국가적으로는 더욱 무책임한 일이며 그로인한 엄청난 후유증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결론은 하나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일

집는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해 당사자인 충청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새로 건설될 세종시가 반드시 행정복합도시여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정부부처 몇 개 팔랑 온다고 자족 도시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은가... 인구의 분산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세종시법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충청도가 행정 복합도시가 되지 않는다 해도 가능한 일이다. "정보기술(IT)·신 재생 에너지·바이오·제약·서비스·유통 등 첨단 미래 산업 분야의 본사·연구소·생산설비 등 세종시가 고도로 업그레이드 된 첨단산업도시로 탈바꿈한다면

태평로에서

'차이메리카' 시대 대책 마련 급하다

G7 쇠락론, G8 무용론, G4 구상 유보... 중국을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G2로 보는 시각이 굳어지고 있다. 2030년이면 미국을 능가하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차이메리카(chimerica)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다.

중국의 건국 60주년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에는 거대국가 중국이 앞으로 보유하게 될 강력한 힘에 대한 우려가 포함돼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2008년 기준)를 보면 경제규모(GDP)는 미국 14조2900억달러, 중국 7조8000억달러. 실질경제성장률은 미국 1.3%, 중국 9.8%.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미국 88.8%, 중국 20.9%.... 중국의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올 상반기 5217억 달러를 수출, 5216억달러 수출에 그친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출국이 됐다. 중국은 부동산 거래액도 올 상반기 312억달러를 기록, 미국(162억달러)과 영국(137억달러)의 거래액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경제지표 거의 전 부문에서 바쁘게 달려가는 중국이 제자리걸음하는 미국을 따라잡는 형국이다.

피츠버그에서 G20이 최상급 경제 정상회담으로 격상된 후 미국이 G4구상을 던지시 떠났다고 한다. G7을 비공식 모임으로 돌리고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이 4강 회담을 따로 갖자는 제안이다.

세계경제를 주무르는 큰 판 안에 어



천상기

· 본회 회우
· 경기대 초빙교수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떻게든 중국을 끼워 넣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보인다. G4구상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1개 좌석으로 줄여야 하는 유럽의 반대로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G20회담을 한국에 선물한 후 '그들만의 게임'을 별도로 갖겠다는 시도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이 G4에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이유도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주는 게 예뻐서 그러는 것만은

아니다. 흑자를 줄이고 환율을 조작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는 의도로 봐야 한다. 제발 수출을 줄이고 흑자를 축소 하라는 압박이다. 건국 60년에 세계를 움직이는 중국, 경제의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는 끝이 없을 정도다. 국내총생

산 세계 3위, 교역액 세계 3위, 외환보유액 세계1위의 경제대국. 올해는 교역액에서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개혁개방의 초기 경제교과서 역할을 하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던 한국을 중국이 슬슬 앞잡아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중국이 자신들을 과대평가한 탓도 있고, 우리의 경제와 국방 두 가지 하드파워가 이미 중국과 경쟁이 안 되는 상태에 이른 탓도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지어낸 G2라고 하는 말이 허구일 수도 있다. 아직도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좌지우지하면서도, 그저 중국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력 확대를 경계한다는 뜻에서 G2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司法府 판결 이상기류 심각하다

사법부의 엇갈리는 판결, 또 그 어느 재판부의 헛갈리는 주문과 이유를 지켜 볼 때마다 필자는 법전이 아니라 유머 집을 먼저 고른다. 편다. 엇비슷한 장면을 찾아 훑는다.

판사 = 이 사람은 무슨 죄로 잡혀왔지?

경찰 = 음주입니다, 판사님.

피고인 = 판사님, 저는 지금 당신만큼 제 정신입니다.

판사 = 유죄, 열흘! 다음 사건!

‘법과 유모어’(최종고 역음·교육과 학사 1991.10.15)의 ‘3. 판사의 즐거움’ 제6화다. 흐르는 글 분위기, 특히 판사와 경찰의 문답으로 미뤄집작전대 외국의 유머를 번안한 듯싶다. 음주가 그 자체만으로 무슨 죄일까마는 그래도 술은 여차하면 역시 죄, 심판받는 피고인이 판사도 늘 취해 있는 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판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죄는 유죄라고 딱 자르는 장면이다. 그렇다. 그 피고인에 그 판사, 그 판사에 그 피고인. 한국의 법정 어느 한 장면을 적잖이 닮았다.

현실은 더러 소설보다 더 소설답다. 근래의 형사재판 그 한 단면도 유머보다 더 유머스럽다. 11월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 불응) 혐의 사건 공소기각은 잠수 법정의 ‘잠망경’ 같았다 -사상 밑에 숨어 세상 위를 살피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30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당직자 150여명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 농성을 벌인 그때 그 사건이다. 당시 민주당측 농성자들은 이레만인 1월5일 자진 퇴거한 정황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연좌농성을 계속하다가 국회 경위들에게 체포된 민노당측 18명 가운데 초범 6명은 기소유예하고 12명만 기소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왜 민주당과 민노당을 그렇게 갈라세워 기소하고 안하고...아니 기소 안하고 하고로 차별했느냐는 것이 마 판사의 대(對)검찰 질책이다. 판결문은 나름대로 그럴 듯 준열했다.

“행위종료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시작된 퇴거불응이라는 하나의 계속된 행위를 대부분 함께한 행위자들을 두 부류로 나눠 한 집단만 기소한 것은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했다. 기소하려면 다 하고 말려면 다 말아야 했다는 것이 ‘마 판사의 법

이다.

마 판사의 마법같은 법 앞에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 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 곧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기소편의주의부터 마 판사는 마뜩찮았던 듯싶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1월20일 그 범위를 더 넓혔다. 형법 제51조 규정사항은 단지 예시일 뿐, 피의자의 전과 및 전력, 범행의 경중, 범행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사회 정세 및 가벌성에 대한 평가의 변화, 법령의 개·폐, 공범의 사면, 범행 후 시간의 경과 등과 같이 법 조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도 참조될 수 있다고 선언했었

특별기고



홍정기

·문화일보 논설주관

법관 개개인의 주관적이거나 정치적인 의견 혹은 신념이 아니라 법조적(法曹的)·객관적·논리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헌법학의 가르침 아니더냐고 다잡을 일도 못할 듯싶다. 그러니 ‘낡고 헌 법’이라고 드잡이 당하기 십상일 터.

더 심각...아니, 더 한심하기로는 마 판사의 유유(類類)가 한둘 아니리라는 점이다. 마 판

사의 그날 그 재판이 범조 안팎에서 물의를 빚자 한 유유 판사는 “공소기각 판결은 무죄 판결이 아니지 않느냐.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요건을 구비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고인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거들었다. 어폐가 이만저만 아니다. 일사부재리는 말하면서 왜 기소편의주의는 건너뛰는지 불고불리는 왜 그냥 넘기는지 필자는

국회 폭력 농성 공소기각 이해 안돼 法官 이념 성향 따른 法 적용 없어야

다. 현재는 그 결정례가 마 판사의 사법시험 합격 2년 전 일이라는 사실에 안도라도 해야 할 판이다.

마 판사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도 불문곡직 거절했다. 판사는 검사가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해야 하는데 11·5 판결은 청구되지 않은 사실까지 심리했다는 것이 당일 항소 방침을 밝힌 검찰의 항변이다. 하기가 앞서 7월 같은 유형의 재판에서 민노당 당직자에게 70만원 벌금을 선고한, 역시 같은 서울남부지법의 다른 판사 판결도 실제로 몰랐던지 혹은 모르는 척했는지 모를 마이동풍(馬耳東風)의 마 판사다.

그러니 그가 11·5 재판에 엿새 앞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10만원을 후원한 열정이 이성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들 무슨 소용이라. 그런 그에게 무릇 법관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헌법적 의무가 엄연하고, 그 양심은

그때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

하기가 대법원도 11월12일 “마 판사의 정치인 후원회 참석이 논란을 빚는데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징계할 일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인겸 윤리감사관은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하면서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대표가 속한 정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맺어온 개인적 인연 차원에서 후원회에 참석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고 불문에 부치기로 결정했다던가.

대법원의 이런 식 결론대로라면 법관이 노 대표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그가 전에 몸담았던 정당의 소속원들을 위해 법리를 저버리고 공소를 기각한 판결도 타할 일이 못할 것이다. 마 판사가 일컬어 우리법연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필자는 ‘부적절-불문’의 불불(不不)결론을 미리 짚어왔다. 2005년 8월8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기용할 당시 우리법연구회가 가장 강력히 추천한 사실을 늘 기억해왔기 때문이다. 그 대법원장에게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문하는 것은 불법 집회·시위 사범을 법대로 엄정히 처벌하라는 당부만큼이나 하릴없는 하소연...

그렇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10월2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빌리면 법원은 2006년 206건, 2007년 318건, 2008년 470건, 올해는 7월 현재 341건의 집시법 위반 사건을 접수했다고 한다. 그들 사건의 재판에서 무죄율이 점점 높아가는 만큼 징역형 선고비율은 갈수록 내리막길이다. 무죄율은 2006년 2.7%, 2007년 2.6%에서 2008년 3.2%, 올해는 7월 현재 4.0%로 우상향(右上向)하고 있다.

2008년 전체 범죄의 무죄율이 1.7%이니 그 2배를 넘어 3배를 쳐다본다. 집시사범에게 점점 따뜻해지는 사법부의 ‘온정’이 살갑기까지 하다. 검찰이 범죄를 전반적으로는 제법 관찮게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왜 유독인지 하필인지 집시 사건 수사와 기소는 그 모양이나 싶다면 법원의 징역형 선고 빈도도 가늠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1%, 2007년 0.7%, 2008년 0.4%였으며 올해는 7월 현재 전무(全無), 단 1건도 없었다.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무슨 일, 무슨 짓이든 다 하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은 제로로 수렴되고 있다는 말과 다를 것 없다.

필자가 집시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을 거들며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이를 키우는 한 아버지 입장에서...”라고 말끝흐린 2008년 7월 24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를 마 판사와 함께 ‘박마’로 줄이고 북마(伏魔)의 음역(音域)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모두(冒頭)의 유머를 국회 법사위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은 11월13일 전체회의에서 변형시켜 한마디 두 문장으로 줄였다 - “다른 도둑놈들은 다 두고 왜 이 도둑만 법정에 데려왔느냐. 돌아가라.” 그 유머 뒤를 받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의 정색 때문에 필자도 정색해 인용한다 - “법관들이 좌우로 쪼개져 제각각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해 서야 되겠느냐.”

6면에서 이어집니다.

중국은 1960~70년대 고속 발전을 이룬 우리의 경제력에 자극 받아 1978년 개혁개방의 길에 나섰고, 그 30년 후인 현재 우리를 훨씬 앞서 일본에 도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은 초강대국이 되기에는 먼 길을 남겨놓고 있다. 중국은 G2의 위상에 맞게 세계질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세계 각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성장한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인권보호나 신앙의 자유 같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다.

우리는 이웃인 중국의 성공과 좌절에서 교훈을 얻고 자극을 받아야 한다. 중

국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높아지는 반면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문제이자 세계평화를 해치는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도 필요하다. 중국이 북한을 동맹국으로만 바라보는 좁은 시각은 경제대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중관

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했지만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관계에 부침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세계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으로 세계경제의 위기탈출을 이끌면서,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는 시기도 훨씬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親日인사 명단 올바른 歷史평가 아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적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열정적인 전도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큰 자란 뜻을 가진 사울이었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며 철저히 탄압한 교조적인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 이름을 작은 자란 뜻을 가진 바울로 바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

모세는 유대인으로 이집트왕궁에서 자랐지만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40년간 도피생활을 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는 대역사를 이루게 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탕자였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힘입어 회개하고 후에 성자가 됐다. 이렇게 인생의 전반전을 부정하게 살다가 후반전에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물은 세계 곳곳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나 역사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 가려낸다면 바울은 기독교를 탄압한 자요, 모세는 살인자이고 어거스틴은 탕자일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한 김활란 박사나 고황경 총장이 일제시대에 일본의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친일 인사로 분류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친일행적 때문이 아니라 이화여대 총장으로서의 김활란 박사이고 서울여대를 설립한 고황경 총장이라는 그 업적 때문일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 식민지시절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경상북도 문경에서 교사생활을 하다 한 때 만주군 장교생활을 했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비밀이 아니다. 아마도 일본 육사를 거쳤기 때문에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존경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군 장교 박정희가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통해 우리나라를 가난에 찌든 빈농국가에서 현대적 공업국가로 탈바꿈시켜 놓은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일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룩한 서독의 도움을 받아 고속도로건설과 제철, 정유, 자동차, 조선 등 중화학공업 육성에 전력

時 論



김진기

· 본회 회우
· 전 KBS 해설위원

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한 분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역사 평가는 공과를 가릴 수 있는 냉철한 마음과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은 '죄

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사회의 기본 윤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

박 전대통령 국가발전기여 공로 외면 민족 반역자와 차별없는 잣대 안될 말

을 투입하고 새마을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봄이면 보릿 고개에 시달리던 가난한 이 나라를 선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냈다.

박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고 유신체제를 강행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후퇴시켰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은 '조국근대화'란 뚜렷한 비전을 갖고 '하면 된다'라는 신념아래 열사봉공의 정신을 발휘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절에 정치적으로

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해방 후 우리 사회 각계에서 나라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것이 올바른 역사평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이 해방 후 철저히 친일 청산을 한 반면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를 무산시키는 등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적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제식민통치 아래서 비록 흠을

남겼다하더라도 민족반역자가 아닌 한 새 조국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 북한처럼 무자비하게 모두 처형한 것 보다 훨씬 더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문제해결 방식이었다고 치하해야 할 것이다.

친일 했다고 해서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정없이 모두 죽여 버린 북한과 이들에게 개과천선해서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남한의 오늘날의 경제력과 국력의 차이는 어느 것이 더 현명하고 옳은 선택이었는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해방 후 6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과거에 잘못된 것을 굳이 들춰내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자는 것인가?

이 땅에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북한의 6·25남침으로 초토화되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이 나라에 경이적인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매도해서 무엇을 얻자는 것인가?

역사는 매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기독교를 탄압한 것이 사실이지만 바울을 '기독교를 탄압한 자'라고 기록한다면 올바른 평가일 수 없다. 모세가 살인한 것이 사실이지만 모세를 '살인자'라고 비난한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탕자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어거스틴을 '탕자'라고 기록해 놓고 비난 받게 만든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이룩한 업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의미 있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길이 빛 나게 될 것이다. [본문]



건강한 우리가족!
건강한 우리인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신종플루 확산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하여 범정부 통합적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이 빠른 것은 사실이나 그 치사율은 0.04% 내외로 계절독감 치사율(0.1%~0.2%)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항바이러스 내성 등 우려되는 바이러스 변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치료 가능한 계절성 질병일 뿐입니다.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구 보건소와 거점병원 약국 등에 163,000여명 분의 항바이러스제가 확보하였으며 별도로 5,000여명 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정부에 210,000명 분의 치료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한 환자는 언제든지 치료 받을 수 있으므로 약품을 사재기하거나 구입하는데 조급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신속하게 진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2009세계도시축전 기간동안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해 왔기에 우리시는 신종인플루엔자를 차단할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감염이 되었거나 의심이 되면 440-4920(인천광역시콜센터)나 응급의료정보센터(지역번호없이 1339)로 연락하시면 원스톱 서비스로 신속하게 진료 상담과 거점병원의 병상 등을 안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종플루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스와 조류독감을 경험하며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현명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서 슬기롭게 극복한바 있습니다.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신종플루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09 인천방문의 해
VISIT INCHEON 2009, KOREA

大韓言論人會 회장 선임 관련 정관개정 추진

회장 임기 3년으로 늘려 단임제로 3년차에 차기회장 미리 선출 키로

이사회서 논의... 정기총회 발의키로

제 121차 정기 이사회가 11월 13일 (금) 오전 11시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조창화 회장과 김도진 부회장 등 부회장 4명, 강진형 이사 등 이사 10명과 윤익한, 전신병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자격심사위원회가 추천한 김성환 화백, 서육식 언론재단 이사 등 5명의 신입회원 가입을 승인하고 2010년 1월 26일(화) 오후 2시에 정

기총회를 열어 17대 회장을 선출하기로 의결하고 2009년 송년회 겸 합동고회연을 12월 16일에 개최하는 것도 승인했다.

보고사항에 이어 조창화 회장이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늘려 단임으로 하고 임기 1년 전인 3년차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회장 선출과 임기에 관한 정관 개정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경험상 임기 2년은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짧다고 생각해 임기

를 늘리되 단임으로 하고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공백을 없애기 위해 차기 회장을 미리 선출해 1년간 업무를 함께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년간 신입회장이 전기 집행부에 참여하면 임기 시작부터 곧바로 본인의 정책에 따라 협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는 현 집행부가 차기 회장이 집행할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신입회장은 결과적으로 전임자가 결정한 정책을 따라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설명이 있었다.

참석자 전원은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편 결과 정관변경의 어려움과 임기의 장단 등의 이유를 들어 4명이 반대했고 13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들은 또 선거로 회장을 선출하는 현 회장 선임방법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추대하는 방안이 협회 성격상 적절하고 선거에 따른 잡음과 후유증도 피할 수 있다는 논의도 있었다.

이에 조창화 회장은 대체적인 의견이 취합된 만큼 다음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안해 의결되면 바로 총회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출처]

2009 송년회 12월 16일 개최

古稀宴 함께 언론상·효부상 시상

2009년 송년회가 12월 16일(수)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송년회는 1939년에 태어난 회원들의 합동 고회연과 함께 치러진다.

이와 함께 본회가 선정해 시상하는 대한언론상 시상식도 겸하게 된다. 대한언론상 수상자는 공로상에 본회 조용중 회우, 특별상에 광우병 파동을 일으킨 PD수첩의 인터뷰 원문 번역의 의도

적 왜곡을 고발한 정지민씨이고 서강화 회우의 며느리에 대한 효부상도 함께 시상한다.

올해 합동 고회연의 대상자는 모두 50명으로 예년과 같이 축하금 20만원과 도자기로 특별히 제작한 기념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강용식 구건서 김담구 김세경 김용술 김정삼 김정일 김한구 김 현 김흥기 노재승 민병문 박 실 박응수 박화진

배학철 성백진 손주환 안종우 안홍열 오근영 오동환 유진수 윤병찬 윤용호 이두석 이상호 이성호 이성춘 이승남 이재승 이재원 이창호 이형균 임병학 임응식 장두원 장창영 정진규 정회준 조봉균 조재린 조종환 천상기 최금녀 최선록 최시호 한상규 황봉구 황우권 [출처]

공로상 趙庸中 회우, 특별상 鄭智旻씨

2009대한언론상, 본상수상 대상자 없어

대한언론인회는 2009년 대한언론상 심사 끝에 趙庸中 본회 회우(80)를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MBC PD수첩 광우병 관계 프로그램을 번역했다가 담당 PD들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진실을 밝힌 PD수첩 영문 번역자 鄭智旻씨(27)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해 오는 12월 16일 본회 송년회에서 시상하기로 했다.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문명호 부회장)는 모두 다섯 차례의 회의 끝에 올해 대한언론상 본상은 적합한 수상자가 없어 선정하지 않았다.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조용중 회우가 평생을 올곧은 언론인으로서 언론일로를 지켰고 80세를 맞은 지금까지도 활발한 갈럼과 집필 활동을 계속해 후배 언론인의 사표가 되는 등 한

국 언론과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점을 높이 사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올해 80세인 조용중 공로상 수상자는 1953년 세계통신에 입사한 이래 동아일보 정경부 차장,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와 정치부장, 편집부국장을 지냈고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편집국장, 경향신문 전무를 거쳐 1987년 한국언론연구원장, 1989년 연합통신 사장을 역임했다. 이어 1998년에는 문우언론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2001년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좌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특별상 수상자 정지민씨는 중고등학교를 영국에서 수학하고 이화여대를 거쳐 2005년 이대대학원에서 서양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외 유학을 준

비하던 중 MBC PD수첩의 번역을 맡아 일해 왔다.

정지민씨는 지난 6월 광우병 관련 방송에서 자신이 번역한 사실을 왜곡 보도한 것을 알고 이를 인터넷에 폭로해 PD수첩 PD 등 제작관련자들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당시 사회 분위기상 일반 언론인들도 하기 힘든 진실의 수호자가 된 점을 높이 사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6일 오후 6시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대한언론인회 2009년 송년회 자리에서 있을 예정이다. [출처]



조용중 씨



정지민 씨

포퓰리즘 따라가는 龍頭蛇尾 보도

한국 기독교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 이면서 큰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최근 주일예배 설교 중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어 먼저 소개한다.

“요즘 신문을 보면 한창 잘 나가고 있는 피겨 선수 김연아에 대해 최고의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이다음 언젠가 김연아 선수가 정상의 자리에서 밀려내려 올 때, 그 때도 지금처럼 애정과 찬사를 아낌없이 보여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의 속성이니까요.”

잠깐 지나치는 얘기였지만 몇 가지 상념이 뒤통수를 쳤다. 첫째는 그가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시각의 편린 때문이었다. 매월 한 차례씩 신문시평을 쓰느라 각 신문의 논조와 일관성, 사건사고를 다루는 자세, 앞날을 겨냥한 예지감각 등을 꾸준히 비교분석하고 있는 필자보다 훨씬 예리한 눈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다.

둘째는 그가 우리나라 교계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들의 대상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매주일 수천 명에 이르는 신자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자이면서 각급 신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의하는 교수인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의 해석과 평가는 어느 사람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그와 동렬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언론에 대한 시각도 그의 시각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리라는 짐작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비록 ‘김연아 선수’를 단편적인 예로 들었을 뿐 언론 전체의 꼴을, 기자의 일반적인 생태와 습성을 ‘호들갑’이라는 표현 하나로 축약하고 있음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곡은 아니더라도 핵심을 짚어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어제 오늘의 지면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그다지도 호들갑을 떨었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보도내용을 보면 그렇다. 지난 8월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시·군 통합 논의는 자율통합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본격화 되었다. 이에 경향 각지의 신문은 사실과 시론, 칼럼을 통해 그 타당성과 시의 적절성, 강력추진 방향을 제시하는데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행정 개편 논의를 지켜보며”라는 제하의 8월 27일자 사설에서 백년의 틀을 찢는 목표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가 하면 중앙일보는 9월7일자 시론에서 “시·군 개편, 국민통합 계기 삼자”며 지역주의 정치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고 국민의

신문시평



최병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기하라”(11/14 사설)며 확고한 의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겨레신문은 “주민만 골탕먹이고 꼬리 내리는 행정구역 통합”(11/16 사설)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질타했다. 동아일보도 “시군 통합 번복, 이 무슨 장난인가”(11/14 사설)라며 호통했다.

그리고는 그 뿐이었다. 소리만 요란했던 ‘지역주의 정치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편의’ 등의 구호에 잔뜩 기대 부풀었던 주민의 소외감과 실망은 달랠 길이 없게 됐다. 이후 언론의 시선은 이미 딴 곳을 향했기 때문이다.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해 국가이미지

하는가. 헌정 이래 누누이 되풀이 돼온 국회폭력이 한 두 번의 경증으로 근절되리라 여겼는가. 정녕 이것이 언론의 한계인가.

언론의 뒷북치기와 호들갑 떨기는 신종플루를 다루는 태도에서 극명해진다. 국내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돼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8월15일이었다. 그 후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우려가 점차 깊어졌다. 본보는 이미 9월1일자 ‘신문시평’에서 언론의 느슨한 시각을 지적한 바 있다. 국내신문이 신종플루의 심각성을 인식, 보도비중을 높인 것은 사망자가 속출한 10월부터였다.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가 사설에 신종플루를 다룬 것은 각각 8월16일과 8월22일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후다. 그리고 10월 말 들어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한 후에야 “신종플루 ‘50일 대응’이 중요하다”(동아 10/28), “신종플루 학교 집단발병 철저히 차단해야”(한겨레 10/27), “휴교조치 해서라도 확산 저지해야”(조선 10/26)라며 예의 뒷북치기에 나섰다. 사실 이때는

신종플루가 수그러들기 시작한 시점이다. 만약 언론이 그 막강하다고 자랑하는 힘으로 국민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려들었다면 벌써 오래 전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전염이 확산되고 있을 때, 그리고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예방백신의 확보, 발병자 관리, 예방수칙 등에 대해 큰 소리를 냈어야 했다.

우리의 언론은 지금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문제, 아시아 경제권 문제, 외국어고등학교 문제, 아동 성폭행 문제 등으로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차제에 포괄적이고 항구적이며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일이다. 정치계 경제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을 향해서만 ‘포퓰리즘’ 운운하지 말고 언론 스스로 포퓰리즘에 함몰돼가고 있지 않은가 뒤돌아 볼 일이다. [국문]

행정구역 개편 비판 슬그머니 자취 감춰 폭력 국회-신종플루 질타도 一過性으로

관심을 고조시켰다. 동아일보도 11월10일자 논평에서 “행정효율 높이는 지자체 통합해야” 한다는 기대를 보였고 한겨레신문은 9월30일자 사설에서 “주민 배제된 행정구역 통합논의 안 된다”는 경고를 내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언론의 기대와 당부와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행안부는 11월13일 1~2곳만을 통합추진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전국 230개 시군구를 2014년까지 50~60개로 통합한다는 구상 아래 우선 16개 시군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과 눈치를 견디지 못해 주저앉고 만 것이다. 이에 중앙일보는 “흐물흐물할 거면 포

에 먹칠했던 국회폭력을 어떻게든 추방해야 한다고 대서특필하던 언론의 기개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연초 이 사안에 대해 언론이 앞장서 비분강개할 때 우리 독자들은 얼마나 속이 시원했던가. 그리고 얼마나 기대했던가.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폭력의 난무현장으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동아일보가 11월7일자 시론을 통해 “폭력국회 ‘합의정신’ 다시 배워야”, 조선일보가 11월6일자 사설에서 “‘국회폭력=의원직 제명’ 안 되면 여의도 폭력 근절 어려워” 정도가 고작이다. 왜 좀 더 호되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지 못

2009 전립선 무료검진 150여 회우 몰려 대성황

대한언론인회(회장 조창화)와 한국전립선관리협회(회장 권성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립선 건강강좌와 무료검진 행사가 지난 21일 오전 8시반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 12층 한국언론인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인 8시 이전부터 회우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순서대로 채혈과 초음파검사, 전문의와 상담순으로 이어졌으며 교육관에서는 중앙대의료원의 김세철 박사가 ‘전립선 질환과 새로운

삶의 질’이란 제목으로 건강강좌가 진행됐다.

이날 강좌에는 회우들이 초만원을 이룬 가운데 진행됐는데 앓을 자리가 모자라 많은 회우들이 30 여분간을 줄곧 서서 강연을 듣기도 했다. 이날 검진을 받은 회우들은 모두 150여명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검진에 부득이 참여하지 못한 회우들은 대한언론인회의 건강포럼 담당자인 이보길 위원에게 등록해 놓으면 내년초에 실시되는 전립선 무료 진료에 참여가 가능하다. [국문]



▲ 검진뒤 의료진과 상담하는 회우들.



◀ 전립선에 대한 강의를 듣는 회우들.

우리 사회 문제점 노출한 ‘루저’ 발언

“키작은 남자는 싫어요”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 KBS 2TV가 방영한 (11월9일)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홍익대 이모양의 이 한마디가 우리사회에 큰 파문을 던져 주고 있다. 이른바 “루저대란”이다. “내키가 170cm니까, 최소 180cm는 돼야한다”는 이양의 이 발언에 맞추어 제작진은 “키작은 남자는 loser!”라고 큼지막한 자막으로 강조하는 친절까지 베풀었다.

또 다른 출연자 문모양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 져도 키가 작으면 오만정이 떨어진다”고 발언, 이양 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오만정녀”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문양은 또 “데이트 초기비용은 남자가 내야한다”고 발언했다가 함께 출연한 외국인 “미녀”들로부터 어이 없다는 공격을 받았다. KBS와 이양 모두 시청자들에게 사과했지만, 이번 루저대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집합해 놓은듯한 소회를 지을 수가 없다.

첫째, 방송사의 시청률 지상주의가 그것이고,

둘째, 요즘 젊은이들의 외모지상주의, 금전만능주의가 그렇다.

셋째,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마녀사냥식 공격태도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안고있는 우리교육의 문제점들을 소홀히 넘길 수 없다는 점을 새삼느끼게 되는 것이다.

먼저 공영방송 KBS의 시청률지상주의 사고방식부터 짚어보자. 그동안에도 미수다는 외국인 미녀 출연자들의(누가 미녀라고 정의했는지도 모호 하지만) 막말과 어설픈 우리말 그리고 남성비하발언 등으로 심심찮게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 왔고 그것을 지키려다 보니 정도가 점점 심해졌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지만, 아무리 시청률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담프로에서 미리 대본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인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싶다. 질문지를 만드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답변까지도 대본을 만든다는 것은 수능시험에서 정답까지 다 알려 주고 시험을 치른 격이 아닌가.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이만저만이 아님을 느끼게 한다.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하면서 어떻게 국민중의 일부층을 비하하고, 패배자라고 자막까지 넣어 가면서 강조한다는 말인가. 언론인 출신인 국회 진성호의원은 11월13일 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논란의 책임은 KBS제작진에게 있다”고 말했다. 진의원은 “이양이 키큰 남자가 좋다는 개인적인 취향을 말한 것이 아니라 키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평가를 내렸으며 최종 책임자인 PD는 (이 내용을 강조하는)자막까지 내 보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평가다.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진행자인 손석희도 “제작진이 편집을 했더라면 문제가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뭔가 한참이나 모르고 한 얘기다. 다시 말해 제작진은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돌출 자막까지

넣은 판인데, 편집해서 삭제하다니 있을법이나 한 얘기가. KBS는 이프로 제작진을 교체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중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하나 이는 사후 약방문에 지나지 않음이다. 공영방송이나 PD들이나, 시



신 대근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총주·대구 MBC사장

소견이라면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

둘째로 지적한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다. 외모지상주의, 금전지상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공개적인 석상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발언으로는 그 도가 지나치다 할것이다. 요즘 여대생들의 주된 화제는 “등록금 문제와 명품, 데이트비용, 혼전성관계, 동거, 사랑이나 조건이나, 사랑이 있

어도 단칸방에서는 못산다, 사랑은 멋진 남자 키큰 남자와 하고 결혼은 조건을 따져야 한다”등이라고 한다. 물질만능의 본을 보여준 기성세대의 책임인 것인가.

셋째, 네티즌들의 마녀사냥식 공격행

위를 되돌아 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눈에 띄어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 네티즌들의 무차별적인 공격행태를 보면서 1977년부터 1997년까지 2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넷 세대”라고 이름지은 돈 탭스콧의 말이 떠 오른다. 그는 “디지털 네이티브”란 저서를 통해 이들 넷세대들은 정보의 홍수를 몸으로 겪으며 자랐고,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도 탁월하며 부모세대보다 타인에 대해 관대하고 긍정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넷 세대는 과연 탭스콧의 정의대로 남에게 관대한 것일까.

끝으로 이번 루저파문을 보면서 우리의 교육이 어디에서 해매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가정교육이 그렇고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모두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금전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사고를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이양의 “키작은 남자는 루저”라는 사고방식이 과연 그녀만의 생각이라고 단정할수

있는가. 필자는 여기서 지난달 문화탐방길에서 마주친 이황선생의 紹修書院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소수서원은 영주시 순흥면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자 공인된 사립교육기관이었다. 1542년 중종 37년에 당시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선생이 백운동서원을 창건한데서 비롯된 소수서원은 1550년 이황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왕으로부터 사액을 받아 최초의 사액서원(왕이 인정한 사립고등교육기관)이 된것이다. 이곳에 있는 여러 건물 가운데 인상깊은 곳은 直方齋와 日新齋로 불리어지는 원장(지금의 총장)과 교수들의 집무실이었다. 주역에서 直方을, 대학에서 日新을 따와 직방제와 일신제로 이름했는데, 그 소담스러움이 왼쪽 뒤꼍에 있는 유생들 숙소인 志樂齋, 學求齋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 원장과 교수들의 집무실을 유생들 공부방과 큰차이없이 만들으로써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손수 모범을 보인 것이었다. 또한 직방제의 숨은 뜻은 “안과 밖이 곧

은 올바른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고, 일신제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라”는 스승의 깊은 뜻이 배어 있는 것이라 한다. 오늘 우리의 교육현장에 과연 이황선생과 같은 깊은 뜻을 가슴속에 안고 임하는 교육자가 얼마나 될까. 이번 이양의 루저발언 파문을 보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방송사의 시청률 지상주의 폐해 드러내 외모 중시-네티즌 ‘마녀사냥’도 벗어나야



KBS 2 TV서 방영된 ‘미녀들의 수다’ 문제 장면.

청률지상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시간이 가면 모두들 잊어 버릴 것이고, PD나 작가들은 자신들의 깊은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소위 엣지(edge)없는 시청자들은 unfriend 해 버리고(우호 시청세력에서 제외해 버리고), 미녀들 얼굴에 정신 못차리는 개념없는(?) 시청자들 술하게 많은데 뭘 걱정이나는 식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는가. 경영진과 제작진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또다른 루저 파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짧은

태다. 우리가 비판하고 타파해야할 본질은 “키 작은 사람은 루저”라는 외모지상주의 그 자체요, 그와같은 젊은 여성들의 사고방식이지 그런 발언을 한 이양은 하나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데도 우리 네티즌들은 마녀사냥식으로 이양의 사생활까지 들춰내며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 어떤 포털에서는 “이○○양 학적을 말살해 주세요”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져 그 정도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미수다가 한국인의 글로벌 감각을 향상시키고 국내사

望百에도 신문-방송 뉴스 철저히 체크… “세상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17>

회우초대석

嚴基衡

인터뷰 글·사진 / 호천웅(본보 편집)

올해 나이 아흔 한 살(1919년 1월15일 생), 3·1만세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반 전에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난 엄기형 회우의 삶은 바로 우리 언론의 산 역사이며 최근세사(最近世史) 그 자체이기도 하다.

3·1독립만세운동과 일제 강점기, 해방과 독립, 5·16과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지켜봤으며 지금도 원로언론인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엄기형 회우는 한성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동화통신 편집부장, 연합신문 논설위원,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자유지성300인회 총무 등 화려한 언론인으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월계동 자택으로 찾아 빈 엄기형 회우는 비교적 건강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걷기가 힘들어 마음대로 외출을 하지 못하는 것 말고는 생활에 불편함이 별로 없다고 했다.

엄 회우는 지난 98년에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다. 6개월간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어지럼증과 구토 식욕부진 등의 고통을 겪기도 했으며 지금도 약은 계속 복용하고 있으나 PSA수치도 낮아졌고 거의 정상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목소리도 뚜렷했으며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되고 아픈 곳은 전혀 없다고 한다.

이웃에 사는 외동딸 은경(銀卿)씨가 준비한 차와 다과를 들며 기자생활을 시작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8·15해방 후 미·소 양군의 남북진주로 사상적 대립과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다. 1947년 엄회우는 국립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정치학과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었으며 정계와 언론계를 놓고 진로를 고민하다가 언론계를 택했다. 민세(民世) 안재홍(安在鴻)선생이 사장으로 있던 한성일보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정부수립 후에는 종종 경무대(景武臺) 취재를 했는데 정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국내사정에 매우 어두워 우리 실정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곤 했던 기억이 새롭다고 했다.

예컨대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백성들은 쌀만 먹지 말고 과일과 계란 등을 대신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는 식이었다. 이런 일들이 논란거리가 되자 대통령의 정례회견 자체가 중단되었다.

1949년 재정난으로 한성일보가 무기휴간에 들어가자 엄 회우는 서울 신문 편집 기자로 자리를 옮겼다가 9월에 한성일보가 복간되면서 다시 한성일보기자로 복귀했다.

다음해 3월 서울대 사범대학 영문과 출신으로 민세 안재홍선생의 군정시절 민정 장관 때부터 정부 수립 후 한성일보 사장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비서를 겸하고 있던 이정상(李貞相)기자를 만나 안재홍 선생의 주례로 결혼했다. 6·25 한국전쟁 발발(勃發) 3개월 전이었다.

8살 아래의 20대 어린 신부를 맞은 30이 넘는 신랑 엄 회우는 달콤했던 신혼 중에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맞는다.



부인 이정상 여사와 함께 포즈를 취한 엄기형 회우.



태어나기 한달반전 3·1운동… 결혼 3개월만에 6·25… 47년 한성일보 入社… 자유·연합·경향신문 거쳐 신문-

6·25 한국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으나 미처 피란을 가지 못한 것이었다.

성인 남자는 모두 의용군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엄 회우는 세 살던 회현동 이층집의 1.2층 사이 다다미방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가택수색을 당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결혼 하자마자 임신한 사모님은 의사를 찾아 낙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결혼 패물과 옷가지 등을 팔고 피복 공장에서 바느질 하면서 생계유지와 숨어 지내는 남편 수발 그리고 입덧의 고통을 참아내야 했다.

UN군 비행기의 공습으로 아랫집 여자가 숨지고 길거리에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던 정경은 더 이상 끔찍할 수가 없었다.

이때가 엄 회우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큰 고비였다.

6·25때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이 “내가 당신 살린 거야! 내가 생명의 은인이지?”라고 하자 엄 회우가 받아 “그래 맞

아! 고마워!”라고 응답했다. 살아오면서 더 잘해 주지 못해 종종 미안한 생각을 할 때도 있으며 집사람 아니었으면 이미 6·25때 죽었을 거라는 엄 회우의 사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사롭다.

사모님 이정상여사도 14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았으나 3년 만에 완전히 회복돼 지금은 소화제도 복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교회 권사님으로 바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모님은 항상 쾌활하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것 같은 분위기였다. 대학 때는 목소리가 엄청 커서 대대장을 맡았었고 한 때 명필(名筆)로도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사모님께 그 능력을 살리셨으면 큰일을 하셨을 거라고 말하자 대답에 거침이 없으시다. “나 좋다고 관심을 보인 권력자도 있었고 재벌 후손도 있었고 내 능력도 대단했지만 4남매 키우다 보니 세월이 갔고 이제 늙었네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엄 회우도 잔잔한 미소로 수긍했다.

사모님 이정상 여사는 상해 임정 요인으로 독립운동을 한 백강(白岡) 이병우

(李炳宇) 선생의 장녀이기도 하다.

1950년 9·28수복으로 끔찍한 악몽 같은 삶을 견뎌낸 엄 회우는 복진 대열에 합류하여 고향 땅을 밟고자 정훈장교(육군중위)로 참전했다.

5년간의 긴 군 복무를 마친 엄 회우는 자유신문 편집 담당으로 언론계에 복귀하면서 사설을 쓰고 월간 사상계와 월간 시사논단 등에 시사평론을 기고하면서 소신있고 식견을 갖춘 중견 언론인으로의 위상을 굳히게 된다.

1957년 동화통신 편집부장직을 맡았던 엄 회우에게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승만 대통령 관련 기사 제목이 “李大統領”으로 잘못 인쇄돼 배달된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었다. 엄 회우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까지 각오했으나 다행히 잘 수습되었고 그 후부터 타자 자판을 따로 “大統領”으로 고정시켜 쓰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고 한다.

58년 연합신문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정치학 공부를 다시 해 국학대학에서 정치학과 전

“흐름 알고 살아야 한다”

홍신문편집부국장·논설위원
국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장·심의실장
유지성 300인회 사회문화위원장

(위원·수필가)



딸 은경씨와 함께한 엄회우 부부.



엄회우집 거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最近世事 모두 겪어 윤리위 창설 멤버로

임강사로 강의를 맡기도 했으며 신문과 잡지에 시론을 활발하게 기고하고 서울중앙방송과 MBC 문화방송 등에서 시사해설을 담당하기도 했다.

엄 회우는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고 장면 정권이 들어섰던 1960년 가을 각 신문사의 편집국장과 논설위원 10여명이 일선부대를 시찰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원충연(후에 군사혁명 최고회의 공보실장) 대령 등 여러 명의 연대장들과 통음하며 정국을 토론했는데 그들은 장 정권이 정국혼란을 안정시킬 능력이 없고 학생들의 관동점 남북학생회담을 방치해 둔다면 북의 남침 오판을 초래할 것이라며 군부집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이다.

5·16의 기미가 군부대에 널리 퍼져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4·19 일주년이 지난 얼마 후 5·16 쿠데타가 발생했고 그해 12월 논설위원으로 몸담았던 서울 일일신문이 자진 폐간하면서 엄 회우는 실업자가 된다.

그러나 다음해 전통적 야당지인 경향신문 편집국 차장 겸 정경부장으로 취임하면

서 군정당국과의 악연이 시작되고 감시와 간섭에 시달려야 했다.

월남 파병 문제 기사와 관련해서 박정희 의장에게 직접 불려가 심문을 받기도 했으며 민정이양을 앞둔 11월28일 한국일보의 “신당 사회노동당(가칭)”관련 기사로 장기영 사장 등이 구속되는 필화사건에 휘말려 해임당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

한국일보 필화 사건과 관련해서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언론사 사장 들을 불러 수습책을 협의하는 자리에 당시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을 대리하여 편집국 차장 겸 정경부장이었던 엄 회우가 참석하게 됐는데 자리에서 “한국일보 필화사건은 이미 정정, 사과했고 발행인, 편집 간부, 기자 등이 모두 구속됐는데 발행인 까지 사퇴하는 문제는 전 세계가 군정의 언론정책을 주시하고 있는 이때에 깊이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순간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이 침묵이 흘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엄 회우는 1963년 6월, 1년 반 동안 몸담았던 경향신문을 떠나게 된다. 얼마 후 장기영 사장은 석방되었으며 경향신문은 소유권이 바뀌게 된다.

다음 해인 1964년 8월 장기영 사장 등의 도움으로 신문 윤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취임하면서 언론법 파동의 소용돌이의 한 복판에서 언론자유를 위해 독재정권과의 힘든 투쟁을 벌였다. 엄 회우는 재임하는 동안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과 함께 윤리위원회의 창설배경과 결정사례를 분석 평가하고 각국의 신문 평의회 현황과 비교 연구한 “신문윤리론”을 저술하여 1982년 서울신문화상(언론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터뷰를 끝내며 역대 지도자 중에 제일 훌륭한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사모님이 먼저 “박정희 대통령이요. 잘 살게 해 줬잖아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엄 회우가 잠시 뜸을 들인 후에 “그렇긴 한데 박 대통령은 독재를 했고 나를 실업자로 만들어서 영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밝혔다. 요즘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질문에는 “미디어법 반대는 언론법 파동과는 달라. 독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소신을 밝혔고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수도 분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엄 회우는 요즘에도 방송 뉴스와 신문기사는 철저히 모니터링 한다고 한다.

뉴스의 흐름은 신문 제목과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알고 논설이나 평론 등은 글자가 잘 안보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접속해 자막을 크게 해서 정독한다. 세상의 흐름은 알고 살아야하고 판단은 바르게 해야 한다는 신조 때문이다. 요즘의 언론에 대해 TV의 편파보도와 신문의 편향보도가 너무 심해 걱정이라며 보도는 어디까지나 사실대로 보도하고 공정해야지 언론이 여론을 오도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꾸짖음에 힘이 실렸다.

한 세기 가까운 삶에서 가장 기뻐했던 일들은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고 학위받고 회사 사장이 되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특별한 날이 돼서 3남 1녀와 배우자 그리고 6명의 손주들이 모두 함께 할 때가 제일 기쁘구요”라는 엄 회우의 얼굴에 아주 인간적인

金泰運의 술 이야기 ⑥



金泰運 회우

Wine의 세계 (下)

우리나라도 점차 와인이 보편화 되고 있다. 대중화 되고 있다고 할까.

와인 전문점 말고도 대형마트, 심지어 구멍가게에도 포도주는 진열되어 있다. 그만큼 많이들 마시고 우리와 가까워 지고 있다는 증거다.

와인의 문화(文化)가 우리들 생활 속에, 그리고 리크리에이션에, 정서 속에 점차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다.

통계에 따르면 금년(2009) 상반기 동안 포도주 수입량은 12,547톤, 위스키 수입량은 5,473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숫자는 정반대의 양상이었다.

포도주는 급격히 상승 그래프를 그렸고 위스키는 그렇지 못했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그것은 와인의 값이다.

한-칠레 FTA 체결로 와인값은 폭 떨어졌고, 프랑스 이탈리아 와인을 제치고 미주지역의 와인이 쏟아져 들어왔다. 와인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돈 많은 부자들만 마시는 술이었는데, 젊은이들이 와인 카페에서 가볍게 한잔 할 수 있는 리저너블한 술이 되었다. 세상의 바뀐 놀랄만하다. 레드, 화이트 어느것을 마시느냐... 그것은 마시는 사람의 취향이다.

흔히 와인은 이렇게 마신다고 한다. 첫째 눈으로 와인의 색깔을 즐기고 둘째 코로 그 향(香)을 즐기고 셋째 혀로 그 맛(味)을 즐기고 넷째 목으로 넘어갈 때 그 알싸한 부드러움을 즐기고.

와인은 온도(溫度)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맛있게 마시려면 와인에 따라 적정온도에 맞추어 주는게 좋다.

레드와인은 실온(室溫)에 마셔야 한다고 말한다. 실온이란 와인을 입안에 담았을때 온도차를 느끼지 않는 정도의 온도를 말한다. 레드와인 이외의 것은 모두 차게해서 마신다. 단 맛이 많이 날수록 낮은 온도에서 마신다. 사람의 혀는 단맛이 날수록 「그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

화이트와인의 경우, 드라이는 7~10℃, 스위트는 4℃ 정도.

따라서 백포도주는 차게, 레드의 경우는 서늘하게 (평균 16℃는 찬느

낌이 들 정도니까) 마시는게 좋다.

백포도주를 차게 하기 위해선 냉장고에서 1시간정도, 그 정도면 적정온도가 이루어 진다.

「어차피 차게 마실건데 뭘...」하고 냉장고속에 깊숙이 오래 넣어두면 No다. 보관할때는 반드시 눕어서.

마시다 남은 와인은 늦어도 2~3일안에 마셔버려야 한다. 그 이상 늦어질 경우 요리용 술로 쓰거나 버려야 함을 잊지 말도록.

민거나 말거나 또 하나 에피소드. “아이스와인” 이야기.

한 농부가 여행을 떠났다. 포도 수확기가 됐는데도 그는 돌아올줄 몰랐다. 그는 게으름뱅이였다. 포도 수확기가 지나 어슬렁 어슬렁 돌아와 보니 포도는 모두 땅에 떨어져 있었고 그위에 서리까지 내려있었다. 후회막급한 그 농부는 그래도 한송이라도 건져보려고 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니 이게 웬일인가. 더 달콤하고 색상이 좋은 와인이 생산된 것이 아닌가. 이게 이른바 “아이스와인”이다.

와인에 얽힌 우문현답은 수도 없이 많다. 와인은 어떤 요리에 맞는가.

대답은 두가지다. 고기에는 레드, 생선요리에는 화이트. 이것은 원칙이다. 그러나 요즈음 고기의 종류 요리 방법 등이 많이 바뀌어 그 원칙도 무너지고 있다.

포도주는 건강에 좋다는 말이 드세다. 알칼리성이고, 미네랄이 풍부하다. 단지 그것뿐이다. 건강에 좋다는 요소는 아무데도 없다. 와인의 권위자가 “이것은 썩좋은 포도주다”고 외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기의 혀는 역시 자기 자신의 것이다. 아무리 비싸고 양질의 와인이 라고 해도 자기 입에 맞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어떤 와인이 좋은 것이냐. 즐겁게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고 해피한 순간이다. 사랑하는 연인과 하늘거리는 캔들 불빛을 받으며 한잔, 두잔, 잔을 부딪치면서 입안에 흘려 넣는 와인.

그것이 최량의 와인 맛있고, 행복을 바닥에 깔고 세상을 차지하는 순간이 아니겠는가. ☞

해맑은 행복이 스친다.

사모님은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실버타운에 들어 가려했으나 추진과정에서 마음이 바뀌

어 지금은 외동딸 은경씨가 사는 동네로 이사 와서 수시로 딸의 보살핌을 받는 게 행복하고 그래서 딸이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

政-官-言論界 주름잡은 面面들

얼마 전에 먼지 앉은 책장을 정리하다가 까맣게 잊었던 낯익은 자료(?)를 발견하고는 주마등처럼 옛일이 떠올랐다. 지금부터 50여년전인 1950년대 후반 국회 출입기자들의 사진첩을 발견한 것이다. 번듯한 앨범 사진첩이 아니라 국회출입기자들의 소속사 명단과 함께 얼굴을 담은 미니 수첩이다.

필자가 소장한 기자단 수첩은 5가지. ①단기(檀紀) 4291년 7월 1일자 서기(西紀) 1958년 7월 1일자 제작 ②서기 1958년 12월 31일 제작 ③서기 1959년 11월 5일 제작 ④서기 1960년 11월 15일 제작된 국회출입기자단수첩과 서기 1961년 4월 1일자로 제작된 정당 출입기자단 수첩이다. 기자단 수첩은 국회 기자단이 민의원 사무처의 협조를 얻어 제작했고 ④수첩은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언론자유시대의 도래로 사이비 기자들이 틀끓자 당시 민의원 사무처에서 일련번호까지 넣어서 제작한 것이다. 또 기자수첩이 단기연표를 표기한 것은 5·16혁명이전에는 단기연호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정착하기까지 이사를 자주 다녀야 했다.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국회는 지금은 혈려 자취가 없으나 옛 조선총독부건물인 중앙청안의 중앙홀이었다. 여기서 제헌국회 2년간 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국회법, 반민주 특위법, 농지개혁법 등 민주국가의 기초입법을 제정했다. 1950년 6월 19일 개원한 2대 국회는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일주일만인 6월 27일 피란길에 올랐다.

피란국회는 대구 문화극장(1950.7.27~8.17), 부산 문화극장(1950.9.1~10.6)으로 옮겨다녀야 했고,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면서 중앙청홀로 옮겨 11월 26일까지 개원했다. 이어 태평로의 경성 부민회관(현 서울시의회)자리로 옮겼으나 1951년 1·4 후퇴 때(중공군남침) 정부와 함께 부산 피란길에 올라 부산극장(1951.1.4~6.11)으로, 다시 경남도청 무덕관(1951.6.27~1953.7.27)으로 옮겼다. 휴전이 되면서 국회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중앙청 홀(1953.9.21~1954.5.30)을 거쳐 태평로 시민회관에 정착했다. 이른바 태평로 시대의 국회가 열린 것이다.

1960년 4·19 학생혁명에 의해서 내각제 개헌안이 확정되고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兩院制)로 운영되게 되었다. 당시 민의원은 태평로의 의사당을 그대로 쓰고 참의원은 현 프레스센터 옆 대한공론사의 강당을 임대로 쓰다가 충무로 옛 해군본부로 이전했다.

흔히 태평로 국회시대하면 1954년 6월 9일부터 여의도로 옮기기 전까지인 1975년 9월 3일까지(3대국회~9대국회 전반부) 21년간을 말한다. 이시기에 국회는 세 차례 최악의 수난(受難)을 겪었다. 1960년 4·19 학생혁명으로 4대국회가,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5대국회가, 1972년 10월 17일 계엄령 선포로 8대국회가 무력과 강권에 의

해 어이 없이 중도해산 된 것이다.

오늘의 여의도 의사당은 근 6년간의 공사 끝에 1975년 8월 15일 준공되고 9월 2일 이사를 하여 본격적인 여의도국회시대가 정착하게 된다. 필자는 1958년 3대국회 말 대한통신 기자로 국회를 출입하기 시작하여 신군부가 등장해 12·12와 5·18 사태로 권력을 장악하여 임기전 문을 닫은 1980년 10대 국회 때까지 20여년 동안 국회 정당을 취재, 한국정치의 현장을 목격 체험하였다.

국회기자단이 생기고 본격적인 취재활동이 시작된 것은 1954년 3대 국회때부터였다. 제헌과 2대국회는 중앙청 출입기자들이 커버했던 것으로 안다. 인원도 부족하고 6·25 전쟁의 와중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3~4대)는 매체라고해야 인쇄매체와 통신매체로 각사에서 고작 2명 정도의 인원이 취재에 임했다. 당시 전파 매체는 KBS 라디오 정도였다.

3대국회 당시 중앙 및 지방사 출입자가 48명, 1958년 6월 7일 개원한 4대 국회는 57명(중앙42, 지방15)의 기자가 출입했고 1961년 4월 5대 국회 때는 62명(중앙46, 지방16), 1964년 4월 6대 국회는 114명(중앙67, 지방27, 사진20), 1978년 4월 10대국회는 128명(중앙81, 지방21, 사진20 TV카메라6)이었다. 당시 국회기자실은 정문 현관 안으로 들어와 오른편 안쪽에 있었고 칸막이 형태의 부스에 각 언론사의 손으로 돌리는 자석식 전화기가 놓여 본사와 연락을 취하도록 했다.

국무위원석은 국회의장석을 등지고 의원들을 마주보고 앉게 되었다. 기자실에는 장기와 바둑판이 각각 2조씩 있어 휴식시간에 즐겼으며 1년에 2회 푸짐한 상품을 마련, 대회를 열어 친목을 다져왔다.

처음엔 본회의장 의석 뒤편에 기자석이 있었는데 5대 때 출입기자들이 많아지면서 지금과 같이 2층 양쪽에 기자석을 마련해 본회의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당시 기자단에 고참으로 전설적인 인물이 몇 분 있었다.

대표적인 분이 제헌 국회 때부터 출입하던 H통신의 K기자로 거수결표로 의안을 처리할 때 손들지 않고 있는 의원을 향해 기자석에서 손들라고 고함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국회개회 전이나 정회 때는 기자들이 의원석 빈 자리에 앉아 의원들과 잡담을 나누기도 했다.

어려웠을 때이기는 하나 출입기자들은 낭만적이었다. 물론 취재경쟁은 무섭게 했지만 저녁때가 되면 무교동으로 몰려가 막걸리를 마시며 우정을 다졌고, 가끔 여야 중진의원들의 요정 초대를 받아 격의 없는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태평로 시절의 의원들은 개인사무실이 없어 불편하기가 말이 아니었다. 지역구의 민원인들을 맞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원들의 고초를 감안, 1968년 7월 7대 국회 때 최초의 의원회관이 충무로 세운상가 위쪽

진양상가에 마련됐다. 그러나 태평로 국회의사당과 거리가 멀어 효율성이 없다 해서 1972년 7월에 오늘의 코리아나 호텔 절반을 임대해서 의원사무실로 배정했다.

1975년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이사하면서 9대국회 중반에 라이프주택이 의사당 앞에 아파트로 신축한 건물을 매입, 의원회관으로 배정했고, 1979년에 국회의사당 우측 앞 광장에 새로 의원회관을 신축해 이전했다.

국회기자단은 5대국회가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兩院制)로 운영되면서 민의원, 참의원 기자단으로 분리됐고, 이때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1960년 11월 정당 출입기자단이 탄생하게 되었다. 정당 기자단은 자유당, 민주당, 사회당 등 군소정당을 출입하며 취재활동을 벌였는데 중앙지 17명으로 정당출입기자단을 발족하게 됐다. 그 뒤 6대국회부터 정당출입기자단은 해체되고 여당, 야당 출입기자단으로 갈라졌다.

태평로 시대의 국회는 1963년 12월 17일 개원한 6대국회를 시발로 1975년 9월 9대국회 전반부(3년)까지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8대국회의 유신파동을 비롯, 4·19 5·16의 격동이 있었지만...

6대국회부터 의정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출입기자들의 취재광역화가 불가피해졌다. 사실 3대국회부터 9대국회까지 이른바 태평로시대에는 출입기자들이 자주 바뀌고 또 소속사도 빈번히 옮기는 풍조가 있었다. 출입기자가 공석이 되면 다른 회사의 기사를 스카우트하는 것이 능사였다. 때문에 국회를 출입하면서 소속사를 한 두 곳 거치지 않은 기자가 없을 정도였다.

필자도 3대국회부터 10대국회까지 출입하면서 회사를 세 번 옮겼다. 이처럼 국회출입 정치부기자들은 스카우트대상이었다.

국회를 출입하던 기자들이 정부 요로 또는 국회의원, 언론계 요직으로 진출한 경우도 허다하다.

우선 금배지를 단 기자들을 보면 바로 국회의원의 길로 진출한 경우와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을 거쳐 진출한 경우다.

맨 처음 국회로 진출한 분은 3대 출입기자였던 조선일보 金周默씨로 충북 음성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4대 의원에 당선된 케이스다. 다음으로는 6대국회에 동아일보 李萬燮 기자가 국회 출입하다가 청와대 출입하면서 공화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경향신문 方一弘기자가 국회 정당 출입하면서 민중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입했다.

7대 국회에는 대구 중구에서 공화당 李萬燮 의원이 재선으로, 서울 동대문 갑구에서는 신민당으로 宋元英 경향 정치부장이 당선되었다. 연합신문에서 국회 출입한 片鎔浩부장이 신민당 전국구로, 동아일보에서 3대 초에 국회 출입한 申東峻기자가 공화당 전국구로 7대 국회에 입성했다. 8대국회에는 대한일보에서 국회 출입한 金漢朱기자가 논산



박기병

- 본회 회우
- 전 강원민방사장
- 한국기자협회 회장(10,17대)

에서 신민당으로, 부산일보에서 국회출입한 辛相佑기자가 양산에서 신민당으로, 宋元英의원이 동대문에서 신민당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片鎔浩의원은 7, 8대 신민당 전국구로 재선 의원이 됐다.

9대 국회에는 신민당 宋元英의원이 3선에, 辛相佑의원이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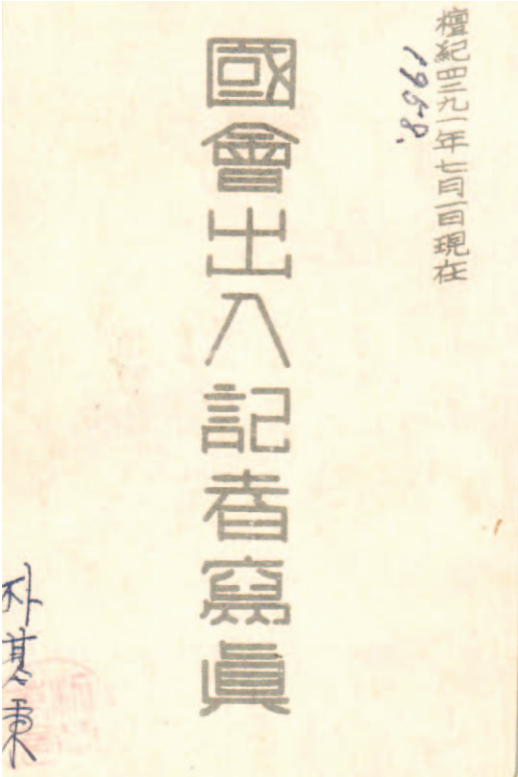
9대 국회는 유정회의원을 통대의원이 선출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비례대표나 다름없었고 73명으로 구성됐는데 중앙통신에서 文胎甲기자가, 조선일보에서 李鐘植기자가, 동아일보에서 李振義, 崔永喆기자가, 경향신문에서 鄭在虎기자, 한국일보에서 林森기자가 당선됐다.

1978년 개원된 10대국회는 공화당으로 趙世衡(한국일보), 李萬燮, 崔永喆, 柳瓊賢(이상 동아일보), 南載熙(조선일보)기자가, 신민당으로는 朴權欽(국제신보)기자가 지역구에서 원내에 진출했다.

유정회는 임기 3년으로 金榮洙(동아일보) 金鍾可(신아일보) 李慈憲(서울신문) 李鍾植(조선일보) 鄭在虎(경향신문)기자가 당선됐다. 특히 李鍾植, 鄭在虎 기자는 유정회 1, 2, 3기를 거쳤다.

국회 출입기자로 국회에 진출한 李萬燮, 金元基 의원은 국회의장을 역임했고 崔永喆, 辛相佑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1958년 7월 1일을 전후해서(3대 국회말 4대 국회초) 국회출입했던 기자들의 동정을 살펴보면 李萬燮(동화통신) 국회의장 역임, 金明九(서울신문) 재무부 공보관 국회의장 수석비서관 대한민건국회 부회장 역임, 李元洪(한국일보)KBS사장 문공부장관 역임, 片鎔浩(연합신문) 7,8대 국회의원 연임, 金準可(동아일보) 尹潽善대통령 공보비서관과 강원일보 사장역임, 趙庸中(조선일보) 文化放送 경향신문 전무와 연합통신 사장역임, 李雄熙(경향신문) 문공부장관 MBC사장 국회의원 역임, 鄭宗植(경향신문) 연합통신 사장 역임, 金寅昊(세계일보) 전주제지사장 역임, 柳赫仁(세계일보) 朴正熙대통령 정부비서관 한국유선 방송위원회 위원장 역임, 趙世衡(합동통신) 주일대사 국회의원 역임, 李桓儀(東洋通信) 全北知事 MBC사장 14대의원 역임, 朴基秉(국회통신) 춘천 MBC 사장 (주)강원민방사장 역임, 趙匡鉉(大韓通信)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어 TV방송상임고문역임 등이다.

太平路 국회시절 출입記者 明細



1958년에 제작된 국회 출입 기자 사진수첩

14면에서 이어집니다.

국회출입하면서 자유신문 鄭鉉淳 기자와 세계통신 劉鍾麟 기자는 각각 신병으로 현역 국회출입기자로 타계한 케이스다. 이밖에 鄭龍鉉(서울신문) 片鎔浩(연합신문) 鄭鉉享(자유신문) 黃南龍(자유신문) 陸四均(조선일보) 金寅昊(세계일보) 柳赫仁(세계일보) 金鎮顯(평화신문) 金堯均(국도신문) 金煥榮(동화통신) 尹錫仁(국도신문) 趙世衡(합동통신) 李柱浩(동양통신) 廉在鎔(세계통신) 劉鍾麟(세계통신) 金文洙(경제통신) 李允秀(합동통신) 金蓮泰(경제통신) 기자등은 타계했다. 42명의 기자 가운데 타계한 기자는 18명에 이르며 생존해 있는 기자는 1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재 및 생사가 불분명한 기자도 10여명 된다.

60년대 접어들어 정치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출입기자수가 늘어났고 70년대 후반에는 중앙일간지 통신사는 각사마다 7명, 경제지 영자지 방송사는 3명에서 5명이 출입, 모두 1백67명에 이르기도 했다. 그전 50년대말(1958. 12. 31~1959. 11. 5) 국회출입기자 가운데 李東馥(KT)기자가 뒤늦게 15대 국회에 진출했고 權五琦(경향신문)동아일보사장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任洪彬(세계일보)월간문화사상 회장 이천테레뎀 온천리조트회장, 金景植(세계일보)KBS 보도국장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 사무총장, 李馨(한국일보)한산신문사장 한려개발회장, 李尙根(시사통신)서울 FM방송 뉴스실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 사무국장, 羅必成(연합신문)일본 중외일보 서울특과원, 韓秉傑(대한통신)매일경제 공무국장 등이 있으며 이밖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이미 타계한 기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입기자수가 늘어나고 국회의 연륜이 쌓이면서 정계 또는 관계 언론계에

진출한 기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11대 국회는 지역구에 13명(鄭男,崔永喆,李慈憲,柳瓊賢,金珍培,金元基,廉吉正,洪思德,李萬燮,金正男,朴權欽,安秉珪,金鍾河), 전국구에 7명(朴敬錫,朴鉉兌,高貴男,李敏燮,趙南照,河舜鳳,姜棋弼)등 20명이 진출해 절정을 이루었으며, 12대 국회에는 지역구에 18명(宋元英,南載熙,朴實,鄭男,李萬燮,金瑑泰,李慈憲,李敏燮,金正男,金漢洙,高貴南,崔永喆,柳瓊賢,朴敬錫,朴權欽,洪思德,廉吉正,安秉珪)전국구에 2명(崔秉烈,康容植) 등 20명이 진출했다.

물론 13대 이후에도 뒤늦게 정계에 진출한 분이 제법 있다. 辛卿植,金吉弘,安澤秀,姜成求,姜仁燮,李肯珪,金秉浩,朴範珍,金基道,李敬在,孟亨奎,崔在旭,高興吉,尹여준,申仲植의원 등이다.

그리고 60년대에 관계에 진출한 분은 金聖鎭(동양통신)청와대 대변인 문공부장관, 金鍾信(부산일보)청와대공보비서 부산MBC사장, 金相振(민국일보)국회의원 비서관 대한축구협회부회장 한국기자협회장 미국이민, 全信炳(동화통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위원 통일교육연구원 이사, 高在瑋(서울경제신문)조달청의자국장 국회전문위원, 申俊熙(경향신문)보령시장, 曹圭河(한국일보)전남도지사 전경련부회장, 黃善必(동아일보)청와대대변인 MBC사장, 朱燉植(조선일보)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 정무장관, 李顯求(조선일보)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도서관장, 李庚文(동아일보)문화체육부차관 한국관광공사사장, 趙倬均(동양통신)문공부 정책실장 KBS감사, 李庚植(동아일보)공보처차관 이태리공보관, 閔正基(대한일보)대통령 공보비서관, 尹奇炳(동아방송)정무장관 실1차관 LA한국문화원장, 金時福(한국일보)문교부대변인 국가보훈처차관, 韓泰烈(동아일보)해운항만청차장, 南正判(신아일보)공보처차관, 安再煥(신아일보)구주지역해외공보관 등이 있다.

특히 60년대와 70년대 국회출입기자들의 동향은 언론관련 직종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崔瑞泳(경향신문)코리아해럴드 내외경제사장 방송위부위원장, 李德柱(경향신문)한국방송사업단사장, 崔時中(동아일보)동아일보논설위원 방송통신위원장, 盧哲容(동양통신)경향신문사장 한국언론연구원장, 沈相基(중앙일보)경향신문사장 일요신문 서울문화사회장, 鄭九鎬(서울신문)경향신문사장 KBS사장, 金大中(조선일보)조선일보주필 고문, 南時旭(동아일보)문화일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趙昌化(대한일보)KBS시설관리사업단사장 대한언론인회회장, 成炳旭(중앙일보)신문윤리위독자불만처리위원장, 金容經(경향신문)한국언론재단이사장, 鄭基政(동양통신)MBC감사 마산MBC사장, 金榮一(합

동통신) 국민일보회장 ABC협회상근부회장, 呂永茂(동아일보)뉴스앤피플인터 넷신문대표, 李祥雨(경향신문)한국기자협회편집실장, 李相轅(동화통신)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전문위원, 宋孝彬(한국일보)소년한국일보편집국장 한국기자협회장(6대), 李炯均(경향신문)한국프레스센터전무 한국PR협회장, 金永日(합동통신)聯合用役대표, 諸宰馨(한국일보)국민일보논설위원 한국장로신문전무 대한언론인회회장, 金東益(조선일보)중앙일보사장 용인송담대학총장,尹相哲(경향신문)한국공연윤리위원장 교보생명상임고문, 朴紀正(동아일보)한국프레스센터이사장 전남일보사장, 安聖悅(동아일보)평화방송보도국장 자민련대변인, 李罕洙(서울신문)서울신문사장, 李億淳(중앙일보)세계일보편집국장 주필, 李太教(한국일보)한국수자원공사 사장, 安英模(서울신문)月刊憲政主幹, 李成春(한국일보)중앙선거방송위원회위원장. 한국기자협회장, 李清洙(동화통신)KBS 해설위원장 고대초빙교수, 殷鍾一(합동통신)연합통신전무 두산신탁이사장, 鄭龍錫(동화통신)FM분당방송대표, 金春彬(대한일보)KBS전문위원, 吳田植(서울신문)현대항공사장, 鄭仁亮(동화통신)방송개발원이사장, 韓東元(서울신문)언론중재위원회사무총장 한국언론연구원장, 朴謹淑(MBC)서초케이بلTV사장 MBC사우회장, 金基柱(MBC)MBC감사 제주MBC사장, 邢鎮漢(MBC)진주 MBC 사장, 宋鎮赫(조선일보)중앙일보논설주간, 金一洙(동아방송)반도정보통신(주)회장, 鄭樞恢(부산일보)부산일보상무, 洪性煥(부산일보)국민일보부사장, 鄭聖珍(CBS)한국기자협회장, 金聖培(대한일보)KBS제주총국장, 丘月煥(합동통신)세계일보편집국장 방송문화진흥원이사, 吳根泳(동양통신)YTN전무, 黃鳳九(동화통신)KBS해설위원 KBS강릉국장, 朴應七(동아방송)아리랑TV감사, 俞仁根(한국경제)문화일보사장, 林應植(TBC)KBS해설위원장, 李文鎬(동양통신)연합통신전무, 吳哲鎬(합동통신)뉴스통신진흥원이사, 柳鈞(TBC)한국방송영상사업진흥원원장, 吉鍾燮(TBC)한국케이بلTV협회회장, 趙炳弼(KT)KT사장, 柳弘久(합동통신)합동시설관리(주)대표, 李圭敏(DBS)동아일보편집국장, 梁輝夫(CBS)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曹圭晉(경향신문)화진그룹상임고문 미디어정보연구소대표, 權赫萬(한국경제)신화전자통신공사회장, 李民熙(중앙일보)KBS문 화 사업 단 사 장, 鄭斗鎭(CBS)KBS해설위원, 黃在弘(CBS)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 宋道均(MBC)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金陳元(동아방송)SBS보도본부장, 吳俊東(합동통신)연합통신 논설위원, 張曉相(MBC)포항 MBC사장, 李相旭(MBC)MBC전무 청주 MBC사장, 高義求(동화통신)미국이민, 宋永信(동양통신)미국이민, 趙誠國(KH)을 산 건 설 상 임 고 문, 金斗根(KT)KT논설위원, 李東和(서울신문)서울신문사장, 李濟薰(중앙일보)한국BBB운동회장, 金政薰(동양통신)월간복지21

발행인, 尹基(합동통신)합동통신사우회장, 朴東璉(합동통신)소비자보호원장, 李昌遠(경향신문)한국단자(주) 회장, 朴美楨(동아방송)KBS대전총국장, 崔乘益(합동통신)강원일보 회장, 金昌植(KBS)포항MBC사장, 金正瑞(동아일보)동아일보논설위원, 金基德(동양통신)서울신문감사, 柳武正(신아일보)MBC해설위원, 金東鎭(MBC)강릉MBC사장, 金好俊(서울신문)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金源鎬(동양통신)실크로드재단이사장, 白和鍾(동양통신)국민일보전무, 李相哲(서울신문)서울시정무부시장, 鄭鍾文(동아일보)동아일보 논설위원, 尹起老(CBS)KBS대전총국장, 金學永(KBS)한국스포츠TV대표, 李在遠(서울신문)정무장관실 차관, 李成海(MBC) (주)큐엔에스회장, 趙載麟(대한일보)강원일보부사장, 千勝俊(동아방송)EBS이사, 韓建柱(KT)KT사장, 崔상원(경향신문)경향신문조사연구실장, 李洋吉(MBC)삼척 MBC사장, 李秀彦(부산일보)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원, 李春松(경향신문)경향신문논설위원, 李海元(부산일보) 애드21 사장, 安秉勲 (조선일보)편집인협회장 조선일보부사장, 李永德(조선일보)KBS이사(無順 所在 파악안되고 死亡하신분 除外) 등이다.

이밖에 국무위원(장관)을 역임한 인사도 상당수가 된다. 정치부기자의 화려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權五琦 부총리겸통일원장관, 金聖鎭 문공부장관, 李雄熙문공부장관, 李元洪 문공부장관, 李振義문공부장관, 崔在旭 환경부장관, 尹여준환경부장관, 南載熙 노동부장관, 李慈憲체신부장관, 金瑑泰 내무부장관, 辛卿植정무장관, 李敏燮문화체육부장관, 朱燉植정무장관, 崔秉烈 노동부장관 金東益정무장관 등이다.

○ 국회출입기자명단(1958. 7. 1)
金煥榮 李萬燮(동화통신) 鄭龍鉉 金明九(서울신문) 李元洪 李馨(한국일보) 片鎔浩 李炯基(연합신문) 鄭鉉享 黃南龍(자유신문) 金準河 李東洙(동아일보) 趙靑中 睦四均(조선일보) 李雄熙 鄭宗植(경향신문) 金寅昊 柳赫仁(세계일보) 金鎮顯(평화신문) 金堯均 尹錫仁(국도신문) 李正勲 李政世(한국경제) 安龍洙 吳東根(상공일보) 李海晶 李南龍(산업경제) 金用典(KPP) 李允秀 趙世衡(합동통신) 李柱浩 李桓儀(동양통신) 廉在鎔 劉鍾麟(세계통신) 金文洙 金蓮泰(경제통신) 朴基秉 吳炳漢(국회통신) 曹匡鉉 朴原泰(대한통신)

○ 정당출입기자단(1960. 11. 15)
方一弘(경향신문), 諸宰馨(한국일보), 朴基秉(대한통신), 沈棋學(국도신문), 朴敬錫(동아일보), 金景植(민국일보), 金圭炫(서울신문), 金光鐸(서울일일신문), 李王憲(자유신문), 李鍾植(조선일보), 金明九(평화신문), 金源載(국회통신), 全信炳(동화통신), 李東馥(동양통신), 韓仁錫(시사통신), 韓秉傑(세계통신), 車指先(합동통신) 

마음 내려놓고 즐긴 1박2일

大韓言論人會(회장 趙昌和) '2009 가을 역사문화탐방'이 지난 11월 16일 '1박2일' 일정으로 열려 역사의 향기를 맡으며 늦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경북 영주 소수서원과 아름다운 가람 부석사, 울진 불영계곡의 고즈넉한 절집 불영사를 둘러 본 뒤 백암 한화콘도에 여장을 풀고 온천욕으로 피로를 풀었다. 다음날 청송 주산지와 주왕산국립공원 투명한 계곡에 마음을 씻고 안동을 경유, 귀로에 올랐다.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

젊은이는 꿈을 먹고 늙은이는 추억을 먹고 살 듯, 젊은이들은 자아를 찾아 여행을 떠나고 늙은이들은 세월의 거울에 비친 흘러간 날들을 되새김하며 길을 떠난다. 퇴직언론인들은 싱그럽던 초록의 젊은 시절, 짙은 녹색처럼 왕성하게 취재현장을 누비며 치열하게 살아온 날들, 열정을 불태웠던 단풍 같은 화려한 시절을 뒤로하고, 겨울 앞에 선 나목처럼 세상과 인생을 관조하는 세대다. 나 무들이 제 앞을 매정하게 내치듯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때다.

처음 들른 답사유적지는 중종 38년(1543)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기리기 위해 세운 紹修書院. 퇴계의 건의에 따라 명종(1550)이 친필로 쓴 '소수서원' 편액을 하사한 국내 최초의 사액서원이자 사학기관으로 대원군의 사원 철폐령에도 살아남은 곳이다. 서원의 자리는 원래 통일신라시대 속수사 절터로 술술이 울창한 서원입구 당간지주가 그 시대 유적으로 남았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서원 정문 앞에 원생들이 시를 짓고 학문을 토론하던 '경림정(景濂亭)' 복원공사가 마무리 됐다는 것.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北宋의 사상가 염계 주돈을 경모하는 의미가 현판에 아로새겨져 있다. 현란한 초서현판은 퇴계의 제자 고산 황기로의 글로 용틀임하는 형상이다. 죽계전 너머에는 글공부에 지친 선비들이 머리를 식히던 '취한대' 정자가 아담한 자태로 가부좌를 틀고 있다.

죽계전 바위에 새겨진 흰색의 '白雲洞'은 퇴계의 글씨. 그 아래 붉은 색의 '敬'자는 주세붕 선생이 직접 써서 새긴 것이라 한다. '敬'자는 세조 3년 단종 복위 거사실패로 이 고을 사람들이 '정축지변'의 참화를 당한 뒤 밤마다 수장된 원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 뉘을 달래주기 위해 새겼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당시 참화를 당한 사람들의 피가 죽계를 따라 10여리를 흘러가 맺은 곳을 지금도 '피글마을'이라 부른다. 또 다른 전설은 주세붕 선생이 속수사를 허물고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을 창건하면서 불상을沼에 버려 밤마다 괴변이 일어나자 불상을 위로하기 위해 '敬'자를 새겼다는 것.

소수서원에서 200m 거리에 금성대군과 순흥부사 이보흠, 순절의사들을 제사지내는 '금성대군 신단'과 맞은 편에 2004년 영주 일대의 고가 12채를 원형대로 재현한 선비촌이 있으나 빠듯한 일정으로 둘러보지 못해 아쉽다.



글·사진 이규섭

-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소수서원 정문으로 들어서면 강당인 명륜당. 서원의 일반 배치가 강당 좌우에 대칭으로 동·서재를 두지만, 소수서원은 일신재와 직방재가 연속으로 이어져 건물배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일신재는 원장과 교수들의 집무실, 직방재는 원장(백운동주)이 쓰던 방이다. 그 뒤쪽에 유생들이 공부하던 학구재와 지락재는 '공(工)'자 형 건물로 방바닥 높이까지 스승이 쓰는 건물 보다 낮게 지은 것이 특징. 사당은 명륜당 서북쪽 별도로 쌓은 담장 안에 있으며 봄 가을 두 차례 제사를 지낸다.

영정각엔 화헌 안향(1243~1306)의 영정(국보 제111호 원본은 국립박물관 소장)과 주자 영정 등이 모셔져 있다. 안향은 고려 중기 문신으로 고려 충렬왕 12년(1286) 원나라에 갔을 때 朱子書와 주자초상을 가지고 와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 영정각 앞 석재로 만든 해시계 '일영대'가 역사의 시간을 재고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순흥전통묵밥으로 점심을 먹었다. 가마솥에 장작불을 이용하여 재래식으로 묵을 만들고 잘게 썬 김치에 삭힌 고추를 넣고 구운 김을 잘게 부숴 넣어 조선 간장으로 맛을 낸다. 쫄쫄이 섞인 밥을 말아먹으니 담백하다.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다 숙대발이 된 순흥은 졸지에 산골마을로 전락하게 된다. 이때부터 심게 된 메밀을 이용해 만든 음식이 메밀묵밥이다.

아름다운 가람 부석사

소수서원 앞 도로를 따라 봉화 쪽으로 20분쯤 달리니 태백산과 소백산 兩百之間 鳳凰山 중턱에 자리잡은 부석사가 모습을 드러낸다. 676년 의상대사가 세운 해동 화엄종의 종찰이다. 원효와 함께 떠난 당나라 유학 길에서 원효는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뒤 되돌아왔고, 의상은 당나라에서 20년 수행 끝에 화엄종의 대가가 됐다.

매포소에서 일주문에 이르는 경사로 는 늦가을이면 샛노란 은행잎 웅덩이 일품이지만 잎을 떨군 은행나무가지에 차가운 바람만 스칠 뿐이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으로 오르는 길 중턱에 위치한 당간지주는 곧게 뻗어 오르면서 위쪽이 약간 좁아져 선의 긴장과 멋이 함께 살아난다. 사천왕이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는 천왕문을 들어서면 부석사 경내, 도솔천(兜率天)이다.

大韓言論人會 역사문화 탐방



부석사 앞에서 기념촬영.



소수서원에서 해설을 듣고 있는 회우들.



주산지에서 포즈를 취한 회우들.

여기서부터 요사채를 거쳐 범종루, 안양루 누각 밑을 지나 무량수전 앞마당에 당도하면 정교한 조각의 아담한 석등(국보 17호)이 마음에 등불을 밝혀 준다. 무량수전(국보 18호)의 배흘림기둥은 답사객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건물. 미술학자나 건축학자의 안목이 아니라도 사뭇히 고개 쳐든 추녀 곡선과 기둥의 조화는 빼어나다. 1043년(고려 정종 9년) 원응국사가 부석사를 중창할 때 지은 현존하는 목조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명품이다.

무량수전 안 아미타여래좌상(국보 45호)은 여느 절과 달리 불상이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아미타불이 서방 극락의 주재자이기 때문. 불상의 시선은 3층 석탑(보물 249호)과 일치한다. 흙으로 빚은 塑造佛에 도금을 입힌 아미타불상은 전형적인 고려시대 불상으로 중생들을 지극히 굽어본다.

무량수전 좌우로는 부석사의 창건설화를 간직한 浮石과 선묘 아가씨의 사당인 善妙閣이 있다.

歷史의 향기와 風光에 취했다

영주-울진-청송일대 周遊記



소수서원 죽계천 바위에 새겨진 글씨.



주왕계곡의 기암괴석.



부석사 무량수전 불상.



불영사 대웅전

16면에서 이어집니다.

의상을 사모한 중국의 선묘남자가 몸을 던져 바다의 용이 돼 의상의 뱃길을 지켰다고 한다. 도적의 무리가 사찰창건을 훼방놓을 때는 거대한 바윗돌을 띄워 도적을 물리쳤다. 浮石이란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다. 任漢厚 회우의 해박한 해설이 탐방의 깊이를 더해준다.

부석사는 소백산을 정원으로 들여놓은 듯한 풍광 또한 일품이다. 동편 원웅국사비에서는 일출을, 무량수전 앞에서는 소백산맥 위로 지는 일몰이 환상적

인 곳이다. 의상대사를 모신 祖師堂(국보 제19호)은 무량수전 뒤 언덕배기에 위치해 있어 文明浩 부회장 등과 잽싸게 둘러봤다. 조사당은 맛배지붕의 간결하고 소박한 건물이다. 건물 내벽의 벽화는 고려 후기 작품으로 별도로 보관하고, 보살과 사천왕 등을 본떠 그린 모작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조사당 앞에는 '의상대사가 꽃은 지팡이에서 잎이 나오며 자랐다'는 전설을 끌어들이는 골담초(일명 禪扉花)를 철망으로 보호해 놓았다. '문화유산답사기'의 유홍준

은 "닭장처럼 쳐놓은 철망이 슬프다"고 지적했다.

부처의 마음 비추는 佛影寺

덤으로 들른 곳은 울진 천축산(天竺山) 자락의 신라고찰 佛影寺. 부처를 만나러 가는 길목은 대부분 길지만, 불영계곡을 스쳐 흐르는 명징한 물소리와 운치 넘치는 금강송과 전나무, 굴참나무 숲이 지루함을 덜어준다. 비구니들이 수련하는 불영사는 수목화처럼 담백하다. 서쪽 산자락 부처 형상의 바위가 절 앞 연못에 비쳐 탄성이 절로 나온다. 본래 절 이름은 '구룡사'였으나 '불영사'로 이름을 바꾼 이유다.

佛影池를 지나면 팔작다포집으로 18세기경의 건물로 추정되는 대웅보전(보물 제1201호)에 시선이 쏠린다.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가 인도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화려한 색채와 세밀한 묘사로 표현한 영산회상도(보물 제1272호)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대웅보전 기단을 받치고 있는 돌거북 조각 한 쌍과 풍경 끝에 걸려 있는 물고기는 火山의 불기운을 누르기 위해서라는 것. 가장 오래된 응진전(應眞殿)은 아담한 다포계 홀처마 맞배집으로 조선 중기 초엽의 건물로 추정하며 역사성과 건축미가 빼어나 보물 제730호로 지정되었다.

매포소 식당에서 챙긴 팜플릿에는 '마음 닦기 좋은 곳, 佛影寺'라고 소개했지만 고즈넉한 산사에서 천년고찰의 숨결을 느끼며 마음을 가다듬는 여유조차 없이 서둘렀다. 어둠을 헤치며 달려 백암 한화콘도에 여장을 풀고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로 친목을 다졌다.

나목그림자 적요한 주산지

백암온천수에 피로를 푼 뒤 아침식사를 마치자 청송으로 길을 재촉했다. 백암에서 영양 수비로 이어지는 88번 지방도로 九珠嶺은 하늘정원을 오르듯 九折羊腸의 예뻐길이다. 마치 경비행기를 탄 듯 협곡이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인다. 劍躑躅山(해발 1017m)과 검마산자연휴양림을 끼고 도는 구주령 정상에 서면 동해바다가 보인다고 한다.

이슬이슬하게 고개를 넘어 도착한 곳은 청송 부동면에 위치한 주산지. 주차장에 세워놓은 안내문이 헛갈린다. 청송군 내 관광지도를 곁들인 대형 안내판에는 현종 말년(1720)에 착공, 이듬해에 완공됐다고 써놓았고, 그 옆 작은 안내판에는 숙종(1720) 때 착공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연도는 같아 정권교체기로 여겼으나 돌아와 자료를 찾아보니 숙종 말년(재임기간 1674년 8월~1720년 6월)에 착공하여 경종(재임기간 1720년 6월~1724년 8월) 1년 때인 1721년에 완공된 인공저수지다. 길이 100m, 너비 50m, 수심 7.8m로 가뭄 때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어 저수지 아래 이전리에서는 해마다 호수 주변을 정리하고, 洞祭를 지낸다.

물에 잠겨 자생하고 있는 수백 년 된 왕버들로 유명한 주산지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2003년 작)이후 유명관광지로 떠올랐다. 새벽에 곰실곰실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저수지를 둘러싼 형형색색의 단풍과 물 속에 발을 담근 왕버들이 조화를 이루는 가을 절경이 압권이지만, 옷 벗은 나목들의 물 그림자가 적요한 세상을 펼쳐놓아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주산지'의 저자 김창수는 '인간의 땅에 남겨진 마지막 선경'이라고 찬탄한 침묵의 공간이다.

기암괴석 어울린 주왕산계곡

1박 2일의 마지막 탐방은 주왕산국립공원 大典寺에서 제3폭포에 이르는 3.4km의 주방천 트레킹 코스. 주어진 시간이 짧아 서둘렀다. 신라 문무왕 12년(672년)에 창건한 대전사 경내를 가로질러 주방계곡으로 들어섰다. 기암괴석과 울창한 송림이 한데 어우러진 풍경은 한 폭의 산수화다.

바위 꼭대기에 은신해 지내던 무열왕 6대 손 김주원이 물을 끌어올렸다는 汲水臺, 백학과 청학 한 쌍이 살았다는 鶴巢臺, 딱시루처럼 생긴 시루봉 등 전설서린 명소들을 지나니 제1폭포가 반긴다. 기묘한 형상의 바위 골을 타고 옥빛 계류가 흘러내려 고인 선녀탕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다. 탐방로에서 200m 우측으로 벗어난 지계곡 바위협곡 끝에 걸린 제2폭포 또한 당당한 모습이다.

목적지인 제3폭포는 2단 외곽 자체도 웅장하지만 그 아래 옥빛 물을 찰랑찰랑 담고 있는 널찍한 沼의 풍광이 일품이다. 상의매포소 표지판엔 제3폭포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안내했으나 1시간만에 주파했다.

이곳에서 전기 없는 마을로 소문난 내원동까지는 1km, 25분이 걸린다고 표지판에 써 있다. 갈까 말까 망설이다 全龍湖 편집위원과 함께 산악훈련 하듯 숨가쁘게 치달랐다. 표지판의 소요 시간을 비웃듯 소위원은 15분만에 도착했다. 그 보다 2분 늦게 도착하여 산수유농장에서 따끈한 산수유차를 마시고 있는데, 申大根 편집위원이 12분만에 주파했다며 합류했다.

사라진 '전기 없는 별빛마을'

내원동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 마을로 약초를 재배하고 산나물을 채취하며 호롱불을 켜고 살던 마을이다. 18년 전 그곳 주민들의 원초적 삶을 취재하여 기억 속에 남았다. 2년 전 마지막 3가구가 철거되어 마을이 사라졌다는 보도를 접하고 꼭 한번 다시 찾고 싶었다. 탁 트인 분지(盆地)는 옛 풍광 그대로인 데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변했다. '산전은 의구(依舊)한데 인결(人傑)은 간 데 없다'던 길재의 시가 실감난다.

마을 입구 당산나무 빈 가지를 스치는 찬바람이 심장을 행하게 관통하여 스산하다. 당산나무 옆 폐교 운동장은 역새군락으로 변해 은빛 머리칼을 흘날린다.

18면으로 이어집니다.

지리산 자락에 메아리 친 ‘건강만세’

大韓言論人會 건강포럼 함양일대 관광

〈글·사진 = 오건환 상임이사·이보길 편집위원〉



함양 仁山家에서의 기념촬영.



조창화 회장이 仁山家 김윤세 회장에게 방문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건강강좌 강사로 나온 김윤세 회장.



仁山家에서 열린 건강강좌.



仁山家 죽염제조 공장 견학.

올해 본회 역점사업의 하나인 건강포럼을 결산하는 2009년 마지막 포럼을 경남 함양에 있는 백운산 기슭의 인산가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열었다.

조창화 회장을 비롯해 평소 건강포럼에 적극 참여했던 회원 등 모두 54명의 회원이 대형버스 한 대와 중형버스 한 대에 나눠 타고 양재동 서초구민 회관 앞에서 오전 8시에 출발했다.

싱그러운 가을바람과 울긋불긋한 단풍이 차창을 스치는 가운데 4시간을 달려 함양에 도착해 인산가에서 운영하는 죽염공장을 방문했다. 죽염 제조 과정을 돌아보고 죽염의 건강효능에 대한 설명도 들은 뒤 통일신라 시절 최치원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인공조림 上林에서 조상의 해안에 감탄하기도 했다. 이어 지리산 칠선계곡 입구 오도재, 서암정사 등을 돌아본 뒤 인산가 수련원에 도착해 짐을 풀고 본격적인 건강강좌 시간을 가졌다.

포럼의 강사로 나온 김윤세 인산가 회장은 선친인 고 김일훈 옹이 일찍이 죽염의 효능에 대해 임상적으로 입증해 많은 치료효과를 거뒀으며 그 후 자신이 이를 기업화해서 현재 상당한 성공을 이룩할 만큼 죽염은 건강식품일 뿐 아니라 우리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치료제라고 설명하면서 노령인 본회 회우의 건강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었다.

2일째는 대부분의 참석회우가 백암산 기슭에 나 있는 임도를 따라 멀리 지리산 등 주변 경계를 마음껏 감상하면서 숙소에서 오도재 영마루까지 약 6.5km의 트레킹을 하고 인산가로 돌아오는 길에 남원의 실상사를 참배했다.

한편 오도재 트레킹 대신 건강강좌를 택한 신동철 부회장 등 10여명의 회우들은 인산가 본관에서 인산가 연수원 홍순진 부원장의 강의를 듣고 아울러 건강 상담을 했다.

이날 홍 부원장은 특히 암치료를 관해 중점적으로 강의했는데 항암치료를 남발하는 의사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쓰는 항암제는 그 원료가 청산가리(비소)로 선진국에서는 절대 쓰지 않으며 이웃 일본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맹독성극약이라고 지적하고 이 항암제를 남용해 많은 암환자들이 부작용으로 일찍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항암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도 「보팔」에서만 생산이 된다고 의사들의 항암제 남발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암환자의 경우 대개 일반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3년에서 10년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상결과 암은 혈액형에 따라 적게 발병하는 혈액형과 많이 발병하는 혈액형이 있다면서 AB, A형이 암에 많이 걸리며 생존율은 3년, 다음 O형은 5년 그리고 가장 적게 걸리고 생존율이 10년으로 가장 긴 혈액형이 B형인데 암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수명은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강연이 끝난 뒤 홍 부원장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치료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일행은 귀경하여 양재동에서 돼지갈비 안주에 소주를 곁들여 모두가 거나하게 취하는 것으로 1박 2일의 2009년도 건강포럼을 결산했다. [본문]

17면에서 이어집니다.

취재 당시 빈 교실에는 석탄난로와 앉은뱅이 결상과 책상 등이 남아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했으나 폐교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주왕산초등학교 내원분교는 1970년에 설립되어 10년 동안 7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교 옆 양철집에서 손녀와 함께 살던 칠순의 할머니는 아직 살아 계실까. 초등학교에 다니던 손녀는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불현듯 그리워진다. 주왕산관리사무소와 통하는 수동식전화가 유일한 문명의 이기였던 반장 집은 돌담만 남아 집터

였음을 알려 줄 뿐이다. 마른 삭정이로 군불을 땀 온돌방에서 보리밥과 상추국, 고추와 된장에 고등어자반이 올려진 저녁을 함께 먹자던 반장은 이제 팔순노인이 되어 어디에 삶의 동지를 틀었을까. 산수유 밭 한 가운데 허름한 가건물이 남아 있으나 산수유 수확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철거된다고 한다.

내원마을은 임진왜란 때 산아래 마을 주민들이 피란을 오면서 형성됐고, 일제강점기에는 목탄생산자들의 주거지로 80여 가구가 살았다. 이농현상으로 주민이 빠져나가 2000년 초까지 9가구만 명맥을 유지했다. 전기와 전화가 없고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문명과 거리가 먼 무공해마을로 알려지면서 찾는 이들의 발길이 잦았다. 국립공원 내 민가 철거 방침과 상수원 오염 등의 이유로 전기 없던 ‘별빛마을’은 지도상에서 별뿔뿔처럼 사라졌다.

우리는 문명의 이기와 편의성에 함몰되어 옛 삶의 방식을 너무 쉽게 버린다. 이등비등 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살던 때 묻은 삶이 정겹듯,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밤이면 별빛을 보며 순박하게 살아가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 그리다.

참여회우명단(가나다순)

강명수 강진형 고덕환 공대식 권혁만

김건이 김관태 김도진 김세경 김양섭 김영효 김은구 김정기 김정일 김종렬 김해도 김호곤 김 화 김휴선 문명호 박광춘 박문두 박응철 박진서 백일진 성낙오 송두빈 송호빈 신대근 신동철 신동호 심재복 안종우 안평선 안현태 오건환 오판룡 윤익한 이구열 이규섭 이배국 이보길 이선희 이성호 이세환 이순기 이종완 이종운 이종준 이창호 이학주 임상학 임응식 임한순 전용호 정기정 정두진 정운종 정형수 조덕일 조창화 주소영 주종환 지용우 천상기 최귀조 최무룡 최상목 최선록 최신희 홍성혁 홍원기 황대연 황봉구 [본문]

이순신(李舜臣) 장군은 정유재란이 끝나가던 1598년 음력 11월 19일 마지막 싸움인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적탄에 맞아 장렬히 순국했다. 411년 전 그날이 양력으로는 12월 16일이었다. 뒷날 그가 일부러 갑옷을 입지 않아 자청하다시피 적탄을 맞았기에 자살설도 나왔고, 전사를 가장하여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어딘가에서 숨어 살았다는 은둔설도 나왔다. 하지만 이는 모두 민족사의 영웅 이순신을 욕되게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특히 자살설은 정황증거로 제시된 몇몇 그럴듯한 기록 때문에 그동안 은둔설에 비해서는 공감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당시 국왕 선조(宣祖)가 의병장 김덕령(金德齡)을 죽이고, 곽재우(郭再祐)와 이순신마저 죽이려고 했던 엽기적 처사에 비추어볼 때 이순신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고 보기에 큰 무리가 없는 듯도 했다.

선조가 자질이 한참 부족한 군왕이란 사실은 임진왜란 뒤 공신(功臣) 선정에서도 잘 나타났다. 공신은 선무공신(무관)이 18명이고 호성공신(문관)이 86명이었다. 목숨을 걸고 싸우다 죽은 군인보다 피란길에도 당쟁을 멈추지 않았던 문관들에게 임금을 수행하느라고 고생했다며 무더기로 공신호를 내렸던 것이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곽재우·김덕령·고경명(高敬命)·조헌(趙憲) 등 빛나는 무공을 세운 의병장은 단 한사람도 끼지 못한 반면 국왕의 노예인 내시가 24명이나 되었다.

원균(元均)도 처음에는 1등공신이 아니라 2등이었다. 공신도감 도제조, 즉 공신선정위원회의 위원장 격이던 이항복(李恒福)이 선무공신을 정할 때에 원균을 김시민(金時敏)·이억기(李億祺) 등과 함께 2등으로 올렸는데 선조가 이순신·권율(權慄)과 같은 1등으로 바꾸어주었던 것이다. 그때 선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원균을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사람으로 여겼으며... 이제 원균을 오히려 2등으로 낮추어 책정했으니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겠는가. 원균은 지하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선조가 원균을 1등으로 올려준 것은 이순신을 통제사에서 파면하고 원균을 그 자리에 앉힘으로써 칠천량전투에서

이순신을 두 번 죽이지 말라

溫故知新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공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참패하고 남은 배 13척으로 왜적의 함대 133척을 격멸하여 서해로 북상하려는 적의 대군을 저지한 명량해전, 전쟁의 물길을 돌려 국가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한 명량대첩을 형편없이 평가절하했던 것이다.

무능한 宣祖의 핍박 받았지만 일부의 자살-은둔설은 말안돼

참패하여 조선 수군을 전멸시킨 자신의 궁극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간교 음흉한 술수였다.

이순신의 자살설은 사실 선조의 엽기적 처사에서 비롯됐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선조가 국가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한 이순신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의 실정과 실책을 덮기 위해 미워했다는 점은 실록이 분명히 전해준다. 이런 변덕과 증오심이 결국 이순신으로 하여금 자살과 같은 전사로 몰고 갔다는 논리이다.

‘선조실록’을 보면 이런 설에 수긍이 가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온다. 이틀테만 명량해전 뒤인 1597년 10월 20일에 선조가 말하기를, “이순신은 사소한 적을 잡는데 불과하다. 그는 자신의 직분을 수행한 것일 뿐 큰 전

그러면서 또 선조는 이듬해 4월에는, “이순신에게 벼슬을 올려주지 않으면서 상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도 했다. 반면 비변사에서 ‘원균은 수군의 주장으로서 수군을 전멸시켰으므로 그 죄는 모두 원균에게 있다’면서 처벌을 건의하자 원균을 감싸고 돌면서 패전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자 사관은 이렇게 통렬히 비판했다.

“한산도에서 남김없이 패전한 원균은 시장에서 사지를 찢어 처형해야 마땅하다. 또 수군이 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원균은 성질이 포악한 일개 무지한이다. 이순신을 모함하여 몰아내고 통제사가 되었으며, 단번에 적을 섬멸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으나 지혜가 부족하여 패전했다.

그리고서는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가는 바람에 장병들을 모두 죽게 했다. 이런 원균의 죄를 누가 벌주어야 하는가. ...이런 일을 보니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뼈가 녹아버릴 것 같다. -

선조는 비정상적인 성격의 주인공이었다. 자신이 적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이었다는 사실에 컴플렉스도 있었다. 의심과 시기심이 많고 독선적이었다. 선조의 이러한 증오에 가까운 미움과 시기심에 대해서 이순신이라고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전에 선조가 무고한 김덕령을 죽인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순신은 자신이 전쟁이 끝난 뒤까지 살아남는다고 해도 결국은 선조의 마수에서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다.

명량해전 뒤에 받은 면사첩(免死帖)이란 게 있기는 하지만 변덕스러운 선조에게 그 따위 것은 백 장이 있어도 소용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이 택한 길이 자살과 마찬가지로 전사, 또는 전사를 자초한 자살이었다는 추론이다.

그러나 이순신의 자살설이나 은둔설은 모두가 그의 생사관·인생관·국가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나온 주장으로 보인다. 이순신의 54년에 걸친 인생은 죽을 곳과 때를 찾아다니고 고행과 다름없었다.

그런 이순신이 좀 더 살기 위해서 구차스럽게 전사를 가장하고 숨어서 살았겠는가. 그런 허튼소리는 다 이순신을 두 번 죽이는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짓이다.

또 하나, 이순신의 공신호 충무공(忠武公)을 그의 이름대신 통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신호란 것이 왕조시대에 임금이 신하들의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 선심 쓰듯 하사한 것이어서 그렇고, 또 충무공이란 시호를 받은 사람이 세조(世祖) 때의 남이(南怡), 임진왜란 때 진주성전투에서 순국한 김시민 등 두 명이나 더 있기 때문이다. [4]

김인규 회우 KBS사장 취임

KBS 신임 사장에 김인규 회우가 취임했다.

김 사장은 사장 선임 절차에 따라 공모에 응모한 15명의 후보 가운데 KBS 이사회 심사를 통해 선임된 뒤 대통령에 제청돼 11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KBS 사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KBS 김 사장은 1973년 KBS의 공사 발족과 함께 공채 1기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 정치부 기자생활을 한 뒤 정치부장, 보도국장, 뉴미디어 본부장 등을 역임한 뒤 KBS 이사를 거쳐 최근까지 한국미디어산업협회장을 맡아왔다.

김인규 회우의 KBS 사장 취임에 대해 KBS 내부의 노조와 PD협회 등 일부에서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에 참여한 전력을 들어 낙하산 인사라는 강한 반발도 일고 있고 공채 1기로 출발해 33년 동안 방송 현업에 종사한 방송전문인이고 리더십과 조직 관리 등 경륜과 전문



김 인 규 회우

성을 높이 살 수 있는 KBS의 최고 경영자로 적임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인규 사장은 24일 오후에 있는 취임식에서 ‘확실한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직종간 갈등을 해소하고 수신료를 현실화해 2012년 시작되는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위해 무료 지상과 디지털TV 플랫폼을 구축하겠

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특히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광고 비중을 줄여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끔 KBS를 이끌겠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적 약자가 별도 시청료 부담없이 공익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인규 사장이 밝힌 무료 지상과 디지털TV 플랫폼 가칭 ‘K-뷰 플랜(K-VIEW PLAN)’은 KBS 1,2TV와 EBS 등 공익채널을 한데 묶어 무료로 서비스하는 쌍방향 디지털 방송 송출 시스템이다. [4]



신아일보 창업주인 고 장기봉 회우의 흉상이 제막되고 있다.

고 장기봉 회우 ‘신아일보’에 흉상

신아일보 창업주였던 고 장기봉 회우(2008년 8월 28일 타계)의 흉상 제막식이 지난 11월 6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신아빌딩 본관 1층 로비에서 간소하게 치러졌다(사진). 본회 정운종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제막식에는 장학준 신아일보 사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신아일보 사우들 다수가 참석했다. [4]

“잘못된 언론보도는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신문·방송은 물론, 이제는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비용 없이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정·중재신청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에 의한 방법 외에 구술, e-mail,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은 물론, 개정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잊지 못할 그때 그일들

金聖恩 장관과의 ‘惡緣’



정준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전쟁 종군기자

청와대 출입을 한지 며칠 안되었던 어느날 金聖恩 안보특별보좌관으로부터 자기 방으로 왔으면 하는 연락을 받았다.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는 악연으로 껄끄러운 사이였으나 막상 새로운 곳에서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으며 반갑기까지 했다.

金장관과의 악연은 이러하다. 경향신문소속 孫柱煥이 기자실로 들어서면서 金장관으로부터 장관실 앞 복도에서 봉변을 당했다고 했다.

그가 쓴 기사로 金장관의 심기가 잔뜩 상했던 모양이었다.

“요즘 젊은기자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말을 국방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퍼부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기가 막혀 “그래 그말 듣고 가만 있었느냐, 장관 넥타이를 잡고 흔들지” 그러면 누가 더 망신이겠느냐고 했다.

나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하자고 제의했으나 막상 당사자인 孫柱煥은 물론, 나이 제일 많고 덩치 큰 金路石마저 뒤로 물러서는 눈치였다. 기자단 전체의 의견도 장관을 고소하겠느냐는 분위기였다.

모두가 그렇다면 나 혼자서라도 기자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어이 서울지검에 고소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법조출입기자단은 행정부 출입기자단 중에서도 가장 막강했다. 그 중심에는 조선일보 趙東午 회우가 있었다.

朴正熙 대통령이 좋아하던 비서실의 법무수석비서관 신직수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자 군법무관 경력을 가산해도 검찰총장임명요건인 검사경력 20년에 미달한다는 점을 지적, 법조기자단은 일제히 이를 크게 보도했다.

신직수씨는 검찰총장 취임식 날 아침 법조기자단을 조선호텔로 초청, 조찬을 베풀고 상견례를 했다.

중앙정보부는 간첩사건을 서울지검

으로 송치하면서 두세명의 정보부원이 법조기자단실로 찾아와서 잘 보도해 달라는 부탁인사를 하는 지경이었다.

내 태도가 강경하자 국방부 기자단은 명예훼손 고소 쪽으로 기울어졌다. 나는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접수시키고 趙東午 회우를 만났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는 듣지 못할 말을 들었다.

나는 김현재 편집국장에게 고소사건을 대충 말씀드렸다. 김국장은 그 자리에서 편집부장에게 큰 소리로 국방장관 고소 기사는 제목을 크게 뽑으라고 지시했다. 그날부터 “국방부기자단 국방장관을 명예훼손으로 서울지검에 고소” 서울신문은 4단으로 크게 보도했다.

조선, 동아, 경향, 중앙도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서울신문은 정치면 기사는 정부를 대변하는 논조였으나 사회면은 아주 자유로웠다. 그래서 김현재 국장은 신문이 나와도 정치면은 보지도 않았다. 며칠을 두고 “서울지검 金국방을 정식으로 입건” “담당검사 결정” “金국방 조만간 소환할 듯”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석간신문 마감시간으로 한창 바쁠때 黃吉台와 또 다른 한명의 정보부원이 편집국 출입문을 들어서면서 나를 만나자고 손짓했다.

나는 金국방장관이 정보부 서울분실장 백태하에게 작용했구나 직감했다.

서울신문 옆 골목 국제호텔 커피숍에서 기다리라고 일렀다. 기사 마감을 하고 약속 장소로 갔다.

백태하분실장이 나에게 고소사건을 취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러 왔노라는 것이었다.

나는 기자단 전체가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간사인 나도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버텼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다.

장관이 사과하면 고소 취하 하겠다고 백태하 분실장에게 보고하라고 했

다. 다음날 기자실로 장관비서실장 홍승일이 방문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다는 것이었다.

기자단은 그를 쫓아냈다.

다음날 장관이 사과하겠으니 기자단이 장관실로 올라오라는 연락이왔다.

장관은 짙막하게 사과의사를 밝혔다. 그길로 趙東午 회우를 만나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날밤 장관의 화해술자리가 요정에서 벌어졌다. 분위기가 무르익을때 金장관은 흰 봉투를 내놓고 먼저 자리를 떴다.

또 하나의 악연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의 하극상 사건이다. 민기식 참모총장이 연말 장군 진급심사 때 7기생 출신 김종필 정보부장의 후광을 업은 7기생은 무더기로 진급시키면서 5기생은 거의 찬밥신세가 됐다. 5기생들은 들끓었다. 이런 판에 민기식 총장은 어느날 공관으로 육본 전참모를 만찬에 초대해 맥주를 마셨다.

5기생인 李龍 소장은 술김에 화를 못 참고 “네가 총장이야” 하며 맥주잔을 민 총장을 향해 집어던졌다. 다행히 맥주잔은 총장을 비껴가서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만찬장은 일순 싸늘해 졌다.

이런 소문은 잘도 퍼져 나간다.

나는 기자단을 이끌고 장관실로 올라갔다. 金장관은 2~3일 내에 모든 것을 인사처리하겠으니 제발 기사화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민기식 총장은 미8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자신의 해임소식을 들었고 5기생 선두주자 李龍 소장은 군복을 벗었다.

그런데 차대통령은 얼마 후 李龍씨를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정가에선 丁一權 국무총리가 같은 함경도 출신인 李장군을 적극 추천했다는 뒷말이 나돌았다.

나는 金聖恩 안보특별보실에 자주 들렀다. 동아일보에 金특보가 장관 재직시 토지에 투기했다는 보도가 터졌다. 金특보는 나를 만나자고 했다.

창동땅은 국방장관직을 물러날 때 차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퇴직전별금으로 구입했으며 그 뒤 북한군 전차방어장벽을 설정할 때 자신의 손으로 그 땅 한가운대를 그었다고 했다.

金특보는 대통령에게 누가 될것 같으니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이 없더냐고 했더니 아무 말씀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그만두면 모든 것을 뒤집어쓰는 꼴이 되니 괴롭더라도 한달 가량 참으셨다가 국민들의 뇌리에서 땅투기 사건이 완전히 사라질 쯤에 그만두시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金특보는 한달 쯤 뒤에 물러났다.

그후 몇 년이 흘렀던가, 청와대비서실장으로 내락되었으나 끝내 고사하고 조용히 말년을 보내고 있었다.

2년 전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해산물을 잘 못 먹은 것이 탈이 되어 운명했다는 소식을 桂成一회우로부터 듣고 놀랐다.

어찌 됐는지 어느 신문에도 부고 기사가 나지 않았다. 아까운 또 한분이 조용히 가셨다.

마음속으로 명복을 빈다. ㉠

도봉산서 송구영신을...

본회 산악회 12월 28일 송년산행

2009년 기축년도 저물어 갑니다

본회 산악회는 기축년 송년 산행을 서울 근교 도봉산에서 12월28일(월요일)에 갖기로 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바쁘시겠지만 한해를 마감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산행지 : 도봉산

◎ 산행일 : 2009년 12월28일 월요일

◎ 집결지 : 오전 10시30분 정각 도봉산 입구 '만남의 장소'

◎ 준비물 : 음료수 간식 등 각자 준비

◎ 산행코스 : 만남의 장소→천축사→마당바위→성도원(약 2시간 소요)

※ 산행뒤 뒤풀이 있습니다

대한언론인회 산악회장 안 중 우



절경을 이룬 도봉산 전경.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고려대 '고암회' 회장에 재선임



★ **곽찬호** (한국통일문화연수원 이사장) 회우 = 11월 13일 열린 고려대학교 기별교우회 '고암회' 제 31대 회장에 재선임됐다. 곽 회우의 고암회 회장 임기는 2011년말까지 2년간이다.

크리스찬 리더십 명예박사 학위



★ **김경래**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회우 = 11월 10일 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크리스찬 리더십 부문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터넷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 **김두호** (인터넷365 대표이사) 회우 = 11월 10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한 제 4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인터넷365는 국내에서는 처음인 인터넷 중심의 비정치성 문화매체로 지난 2007년 창립됐다.

'나눔문화' 주제 강연회 개최



★ **남시육** (광화문문화포럼 회장) 회우 = 11월 11일 오전 7시 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김만덕 나눔 쌀 만섬 쌀기 조직위원회' 위원장 탤런트 고두심 씨를 초청해 '세계를 향하는 나눔문화'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신문협회 감사패 받아



★ **박기정** (전남일보 고문) 회우 = 11월 12일 전남 광주의 라마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협회 주최 '신문발행인세미나'에서 장대환 신문협회 회장으로 부터 신문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최서영 회우 저서 축하모임



★ **신경식** 회우 = 11월 25일 시내 음식점에서 최서영 회우의 저서 '내가 본 현장 여울목 풍경' 출간을 축하하는 모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김준하, 남시육, 심상기, 신경식, 최서영, 조창화 회원과 전 경향 정치부 이창원, 극작가 신봉승씨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 2009 발전공로상 수상



★ **윤세영** (SBS 회장) 명예회우 = 서울대에서 시상하는 2009년 발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대(이장무 총장)는 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발전공로상을 시상해 왔는데 올해 윤 회장 등 4명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 10일 오전 11시 서울대 교수회관 본회의실에서 열린다.

'금융리더스 아카데미' 개설



★ **윤종보** 회우 = (사)글로벌파이낸스 회장인 윤 회우는 포럼 안에 금융기관 중견간부들을 대상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거시적 교육과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살리는 '금융리더스아카데미'를 개설하고 11월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기 개강식을 가졌다.

한·일 국회의원 포럼 열어



★ **정구종** (한일미래포럼대표) 회우 = 11월 26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신한일관계의 모색'을 주제로 제3회 한일 국회의원

포럼을 열었다.

칼럼집 등 출판기념회 열어



★ **조강환** 회우 =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조 회우는 25일 오후 6시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헤리스타에서 칼럼집 '광화문 30년'과 '뜻이 있어 길이 있어 조강환이 살아온 날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남아공 한국전 참전기념비 제막



★ **지갑종** (유엔한국 참전국협회 회장) 회우 = 11월 16일 오전 평택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59주년을 맞아 참전기념비를 제막했다.

남아공화국 전투비행단은 한국전쟁 기간에 연 12,067회 출격해 혁혁한 전과를 올리면서 37명의 조종사가 전사하기도 했다.

서울시 자원봉사상 수상



★ **최병요** (본보 편집위원) 회우 = 11월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09 서울 자원봉사 페스티벌'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 시장으로부터 자원봉사상과 메달을 받았다.



언론재단 임직원들이 연탄을 나르고 있다.

저소득층에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

고학용(언론재단이사장) 회우 = 한국언론재단 임직원 40여명과 함께 11월 18일 관악구 삼성동 저소득층 가정에 12,500여장의 연탄을 기증하고 300여장을 직접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를 가졌다.



김은구회우(왼쪽에서 여섯번째)와 양휘부 회우(왼쪽에서 여덟번째)가 수상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대한민국 광고제 개막 테이프 끊어

양휘부(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김은구(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 회우 = 11월 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개막된 한국방송광고공사 주최 '2009 대한민국 광고제'에 참석, 광고 관련자들과 함께 개막 테이프를 끊었다. 5일에는 이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가졌다.

▶ 전화번호 변경

- ★ **고덕환** 회우 = 031-818-2525
- ★ **강진형** 회우 = 010-8461-5349
- ★ **김세경** 회우 = 031-282-8858
- ★ **정재호** 회우 = 010-5896=7707
- ★ **한영탁** 회우 = 010-5478-3744
- ★ **황선용** 회우 = 010-8415-9481

▶ 주소 변경

- ★ **권혁만** 회우 = 경기 하남시 감북동 345-9 (우) 465-818
집전화 : 02-473-9993
- ★ **고덕환** 회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414-5 평산하이츠빌라 7동 101호 (우)412-801
- ★ **김경식** 회우 =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185 I-Park 101-902 (우)476-823
집전화 : 070-8951-7456

휴대전화 : 010-4746-7756

- ★ **김두근** 회우 =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우성아파트 204-803 (우)156-773
- ★ **신광식** 회우 = 서울 관악구 봉천동 196-135 교체빌 201호 (우)151-050
- ★ **홍순일** 회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05-2 헤리티지 103-103 (우)463-869
집전화 : 031-716-5566
휴대전화 010-3299-3001

▶ 회비 납부

2009년도분
김한길 조덕연 오동환 이덕주
이대영 임응식 황선용
2010년도분
김건이 김영호 김휴선 노영태
이병대

경제를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 원자력



경제를 생각하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 원자력은 대한민국산업의 힘입니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1%였지만
전기요금 상승률은 불과 10%대였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에너지 원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산업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연간 1억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주는 원자력!
지난 30년처럼 앞으로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KB  금융그룹

발걸음에 힘이 실린다.
출로 가는 길이 아니기에

오늘도 어깨를 펴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의 걸을 지켜주는 이들이 있기에
성공으로 가는 이 길은
결코 멀지 않을 것이라고

성공이라는 길 위에
KB국민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국가고객만족도
3년 연속 1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3년 연속 1위

직장인을 위한 금융혜택 직장인 우대적금 / KB 퇴직연금

미래를 여는 지혜 —

KB 국민은행